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풍성
빅맨평생통장
복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때는 약정금리로
고객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다이얼링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우리는 새해 출발선에 서있다. 시작이 좋을때 값진 결실을 거둘수 있다.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와 발심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이 돈의 머문자리 보고저 하면 새벽녘이 가장 좋은 때가 되리라 그대들이 언제나 일심이라면 니르바나를 스스로 증득하리라. 〈법구경〉

고관(高官)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닦아가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재물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모으는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새 출발

자기 몸에 진여(眞如)의 존재가 있음을 스스로 믿어, 발심 수행한다. 〈기신론〉

보살은 온갖 여래의 종성을 끊어지게 하지않기 위해 발심하며 온갖 중생을 건지기 위해 발심한다. 〈화엄경〉

보리심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보살은 마땅히 네가지 더럽히는 작용이 없는 마음을 일으켜야한다.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번뇌가 더럽히지 못하는 것, 둘째는 명리가 더럽히지 못하는 것, 셋째는 하승(下乘)이 더럽히지 못하는 것, 넷째는 악한 중생들이 더럽히지 못하는 일이다. 〈대승사법경〉

샷다르타태자는 출가하기로 결심하였다… 온세상이 잠든 시간에 마부 찬타카를 깨워 물려 만류하는 그에게 향하여 조용히 다짐하였다.

"나는 일체 중생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돌아가나니, 위없는 큰 깨침(무상보리)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본생경 권1〉

사사(四事 · 음식 의복 와구 탕약)로써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을 공양한다 해도 발심하여 불과(佛果 · 깨달음)을 향해 나아감만 못하다. 〈열반경〉

만약 사람들이 있어서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어떤 사람이 갠지즈강의 모래처럼 많은 수효같은 불국토에 가득차는 진귀한 보배로 세존을 공양한다해도, 보리심을 지성으로 한번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덕이 전자의 복덕보다 나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무외무문경〉

관련기사 3면

3개종단 대학설립 추진

천태종 금강대 대전에 4년제 정규 불교 단과대
태고종 동방대 각종학교 예산 50억원 조성계획
진각종 진각대 위덕대이어 교화사 양성 특수대

각 종단들이 4년제 정규대학 및 각종학교 인가를 서두르고 있어 새해에는 교육 백년대계를 향한 교계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과 진각종 진각대학(학장 박현기),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이 그곳으로 때마침 대학설립의 자율화를 골자로하는 정부의 교육개혁의 지와도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태종은 구랍 정기종회에서 교양대학인 종립 금강불교대학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키로 결의, 금년안으로 등록신청 및 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천태종은 이미 대전에 5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종합대학보다는 4년제 정규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금강불교대학은 범불교 재가불자를 위한 교도의 불교전문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정규대학으로 개교하게 될 금강불교대학은 학생전원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사관학교 형식의 운영체제로 등록금도 종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이 논의돼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4년제 각종학교로 교육부 취득인가를 추진해온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은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승려교육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태고종은 현재의 총무원건물을 동방불교대학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총무원을 신촌 봉원사로 이전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고종은 동방불교대학의 각종학교 취득및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종단사찰재산전용 30억원, 증도상금 10억원,동문성금 5억원 등 50억원의 소요자금 조성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종성개혁안이 시행되는 년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각종은 올해 4년제 정규종합대로 개교한 위덕대학교에 이어 종단의 교화스승양성 전문교육기관인 진각대학도 조계종 중앙승가대학 형식의 4년제 각종학교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위덕대 손제석 초대총장은 구랍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진각대학을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받아 졸업과 함께 위덕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대학건물을 신축키위해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주위에 부지매입을 추진중이라며 진각대학은 전문 교화스승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허가기준이 까다로웠던 지금까지의 대학설립예고제(1천2백억의 시설자금 필요)에서 일정한 기준만 되면 허가하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시행될것으로 알려진 교육대개혁안(가안)에 따르면 정규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각종학교)설립 등 대학형태 및 명칭을 대폭 자유롭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김원우 기자〉



신년하례 종단협이 지난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신년하례법회에 월주 혜초 운덕스님등 각 종단 총무원장과 교계지도자 김윤환 신한국당 대표위원등 정 · 학계 대표 3백여명이 참석, 상구보리 · 하화중생을 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국립공원 관람료 합동징수 명문화 촉구

월주 총무원장, 내무장관에…전통사찰 농지취득 법개정도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대정부관련 불교현안문제 해결을 관계기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월주스님은 지난 5일 김우석 신임내무부장관의 신년예방을 받고 대정부관련 불교계 현안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4면〉

이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내무부가 불교계 입장을 반영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명문화 △국립공원 입장료중 30%를 당해사찰에 지급할 것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법령개정등의 불교계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장관은 "합동징수는 내무부 행정지침으로 수용하고 입장료지급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구랍 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종합토지세 문제등 불교계 입장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은 부서발로 정부기관 실무자들에게 교계 현황을 설명하는 등 정책수립에 불교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올 현대불교 7대사업

2천만 불자의 대변지로 신행불교의 길잡이를 추구해온 현대불교신문이 '96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7대사업을 펼칩니다.

교계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체 개발하는등 현대불교가 벌이는 새해 7대사업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로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95년 10월 개통한 부다피아의 연계서비스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엽니다. 인터넷상의 홍보 및 광고이용도 가능합니다.

영상사업단 발족

각종 불교 영상물을 제작해 불교문화 소개에 앞장설 것입니다.

부설 '도서출판 여시아문' 본격 가동

경전해설 · 스님 법어집 등 연내 10여종의 도서를 출판합니다. 또한 본사 부설 책방 여시아문과 견계해 불교 출판문화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대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보급

현대불교 '96 연중 캠페인 '새싹불자를 키우자' 관련 사업으로 전국 중 · 고교에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남한산성 · 경주남산 '아빠와 함께 순례'

호국불교의 성지 남한산성과 부처님 땅 경주남산을 답사합니다.

소설 '수미산'의 현장 무육도 답사

현대불교 인기 연재소설의 배경이며 무육도라 불리우는 간월암을 작가 고은선생님(본지 논설고문), 화가 조항속선생님과 함께 기행합니다.

제2회 신행수기 공모

불자들의 바른 신행관 정립과 생활화를 위해 감동깊은 신행수기를 널리 공모 · 시상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추후 발표합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새 기획

보르헤스 불교교리 17면
건강백세 20면
세계불교문학 다이제스트 20면
문체부장관 인터뷰 7면
"상용화석 세 공룡전체 5면
'96 지역불교 전망 14면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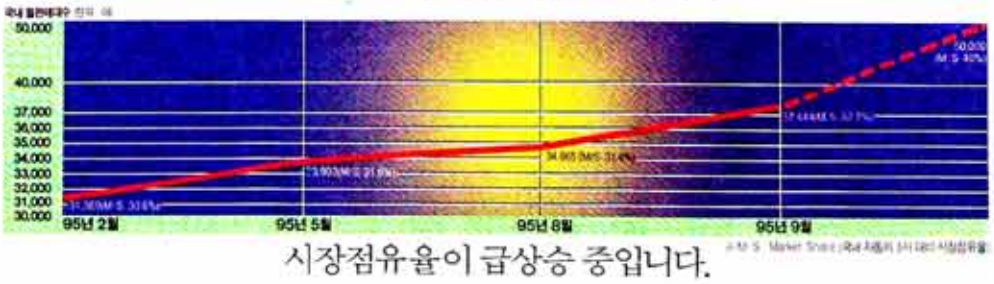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콜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랠리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KIA 기아자동차

사 설

구호물자보다 교육지원을

—유엔 빈곤퇴치의 해에 부쳐

올해는 유엔 빈곤퇴치의 해이다. 우리에게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 식민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풀뿌리를 연명하던 때가 엊그제였던 듯한데 소득 1만불이라는 기적의 시대를 열었다. 절대 빈곤 인구가 200만이라 한다. 이 수준은 인도의 4억3천만, 중국 1억1천만, 브라질의 7천200만명에 비하면 경이적인 발전이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년개발청 관리는 이렇게 말한다. "25년전 한국과 방글라데시 모두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1만달러를 넘어섰고 우리는 170달러로 후퇴했다. 170달러도 정부발표니 믿을 수 없다" 빈곤국의 공통점은 교육수준이 낮고 부의 독점적 편재가 심각하다는데 있다. 빈곤은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은 저소득을 낳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5%미만의 부유층이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면서 실업은 적체되고 인플레가 춤을 춘다. 사람들은 권리도 의무도 모른 채, 당장 입고 먹을 것 외에는 다 사치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간다.

한국을 거기서 건져올린 일등공신은 교육열일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감각, 능력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그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 사실은 빈곤퇴치에 있어 관건이 생산의 총량이 아니라 사회적 코드라는 것을 일러준다. 아프리카와 남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의 상호교섭의 규모가 작고 또한 분절과 독립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에는 나름의 전통과 관습의 자연 질서를 형성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세계가 달라졌다. 달라진 세계의 정보구조, 무역구조, 권력구조에 그들은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대에 발빠른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는 근대 인도와 근대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비극은 서구의 근대화와 그 부산물인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몰고온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인 바에야 그들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민의 충격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모든 국민적 국가적 에너지를 서양의 제도와 코드를 익히는데 전력했다. 우리가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거창한 사업에 동참하는 주체로 성장한 것은 누가 뭐래도 그같은 노력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빈곤의 퇴치는 변화된 시대의 코드를 교육을 통해 지도 계몽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도적 국가들은 미국처럼 자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들 나라들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유도하는 공작적 책동을 접어야 한다. 또한 당장 필요한 식량이나 구호물자를 실어다 주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모르되 그 또한 부의 편재라는 현실 속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교육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법과 사회적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등을 그들의 실정에 맞게 고안하고 실행하도록 지도 계몽해야 한다.

불교계도 유엔의 기치에 수회동참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우리는 선우·동산반야회 등을 통해 벌써 시작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불가의 무애행은 삼륜청정(三輪淸淨),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없어야 한다지만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하는 이타의 방편을 절실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열 린 마 당

새싹불자를 키우자 — 현장의 소리

96년 불교청소년의 해가 밝았다. 본지는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 포교를 위해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먼저 청소년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대 효 〈스님·제주 원명유치원장〉

신세대 맞는 포교환경 조성

50대에 들어서 가끔 내자신의 성장기를 회상해 보면 안타까워진다. 불법을 바로만나 삼학(三學)의 환경 가운데서 유년기로부터 기초를 다져왔다면 청소년기를 방황하거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과 같은 신세대에게는 빠르게 변화된 사회의 영향하에서 전문적인 대응논리 개발없이는 포교효과의 기대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종립동국대학교에 불교교육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소를 구비하여 최우선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들의 참선, 신앙심고취 프로그램이나 장·단기수련과 인격도야를 위한 수행의 효과적 방법이 포교현장에 맞도록 활용되고 병행돼야 한다. 그럴때만이 초년기에서 만난 불법을 통해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정토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천 종 〈스님·선학원 지도법사〉

청소년 전문포교사 양성을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 문제로 치닫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전통문화와 기성세계와의 차이등 여러방면에서 세대차이를 느끼며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교도 청소년 근본문제에 대한 종교적 이념제시 및 방향제시가 이뤄져야 할 싯점에 이르렀다.

요즘들어 여러사찰과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행사와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정립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전문 청소년포교사 양성기관의 설립 등 청소년 불사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불교는 청소년 불사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 우리민족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때다.

이영재 〈쌍문3동어린이집 원장〉

자녀와 함께 예불참석하자

새싹불자들이 자꾸만 줄고 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절에 가는 것을 보고 마귀성에 간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절에 같이 가려고 찾아보면 어느새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고 있을 때가 많다.

이는 불자부모와 스님들의 책임이다. 오직 자신만 잘 공부하고 믿으면 된다는 좁은 소견이 우리 어린불자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스님들은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도 어린이 포교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 귀찮고 성가시다고 어린이법회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절에 올 때는 가능한한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찰에서는 어린이불자를 위한 버스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어린이법회 교사들은 불교사상이 담긴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 법회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정대법화 〈봉국사 신도·학부모〉

중·고학생회 없는 사찰태반

동네의 작은 교회에 가보면 유치부에서 중·고·청년회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유치부 또는 중·고학생회가 없는 사찰이 대부분이며 또 있어도 타종교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찰의 어린이법회나 중·고학생회 법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쉽게 실증을 낸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훌륭한 것은 알겠지만 법문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고리타분하다는 것이다.

유치부에서 국민학교—중—고교로 이어지는 연결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상급학교에 진입하면서 학생회가 없을 경우 결국 절밖으로 내몰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학년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교리와 법문을 반복해 쉽게 실증을 내게한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사찰과 어린이 지도자들은 우리 새싹에 맞는 양질의 가르침을 펼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학송 〈광동여고 교법사〉

청소년프로그램 다각 연구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는 이제 불교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만큼 종단을 비롯한 모든 불교단체들의 적극적인 청소년 포교방침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장기적 안목하에 청소년 포교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일과성·대외홍보성 계획이 아닌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하에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사찰 학생회의 집중적인 지원·육성을 통한 저변확대 역시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포교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뿌리를 심는 것이다. 이런 기본조직과 방향의 탄탄함 속에서만이 실질적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 선 〈선재마을 대표〉

불교 팬시용품 대중화모색

그동안 선재마을을 운영하며 각종 불교팬시용품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 불교용품의 대중화나 그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시중에 나와있는 현란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에 이미 우리의 청소년들은 익숙해져 있고, 또한 판매활로 개척도 열악하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팬시용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부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나 신도들만이 사용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불교팬시용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가 더욱 우리사회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 한 방법이 우리의 새싹불자들을 내일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다. 어린불자들에게 맞는 재미있고 유익하여 다양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등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일들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불자의 관심과 열성만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박숙정 〈월간 동쪽나라 편집장〉

어린이 문화공간 확대해야

1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계의 어린이 잡지 〈동쪽나라〉가 어린불자들과 만나 온지 7년. 하지만 기독교 〈새벗〉과 카톨릭 〈소년〉은 40여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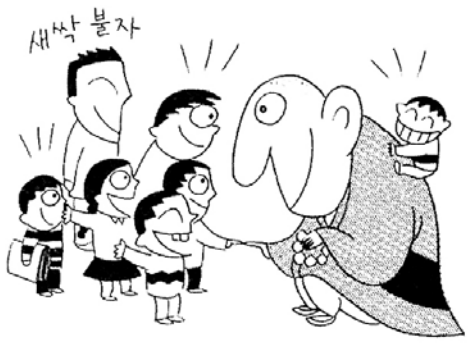
전통만큼 잡지를 통한 어린이 포교의 역할은 몇십배 아니 몇백배의 차이가 난다(새빛·소년 5만부, 동쪽나라 6천부).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타종교의 경우 지나치리 만큼 전폭적이지만 유독 불교신자들의 관심은 예외(?)이다. 그것은 분명 부끄러움이다.

〈동쪽나라〉와 더불어 어린이들과 만나오며 누구나 쉽게 가져보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린이들의 세상은 그 안과 밖 모두 오롯한 한길로 이어져 거짓을 드러낼 수도 숨길 수도 없다.

한달에 한번 국토순례를 통해 몇날 며칠 밤새고 연습해 근사한 연극을 발표하며 어린이들의 신나고 밝게 뛰어오르는 세상과 만나는 감동을 이제는 수많은 불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현대만평

박구원



눈높이 포교

목어

'나만이' 여사와 박미선 씨

'나만이' 여사는 만화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40대의 중산층 주부다. 그녀가 등장하는 만화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펴낸 '난 아냐!' '나만이 여사의 시민의식'이란 부제가 말해주듯 이 만화는 주부들의 시민의식 결여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만이' 여사는 남편 고달퍼씨와 아들 고생문(고1) 딸 고민숙(중2)과 함께 산다. 공중도덕을 공중에 뜬 도덕쯤으로 알고있는 그녀의 질서의식은 '無'다.

내것을 챙기기 위해 이웃을 전혀 생각 않는 그녀는 얌체족이다. 따라서 봉사정신은 털끝만큼도 없다. 성적이 곧 행복순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아이들에게 과열과외를 강조하고 잔소리가 심하다. 뿐 아니라 그는 과소비에 수다와 낭비, 화투놀이등 나쁜 버릇을 다 갖췄다. 국제화시대에 대한 감각이나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다.

박미선씨(朴美仙·29)는 얼굴도 모르는 가난한 여대생에게 신장을 기증, 병자년 새해 벽두를 환한 웃음으로 밝힌 실제 인물이다. 일간지는 그녀를 '행복 나눠주는 천사주부'라고 했다.

그녀는 남을 돕고 싶어 직장을 가졌다. 서산에서 생활설계사로 일하는 그는 틈틈히 고아원을 찾고있다. 94년 11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기증서를 제출할때는 남편이 반대할까봐 사후기증으로 속여 도장을 받아냈다.

"나는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의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만이' 여사와 박미선씨중에 우리는 누구를 닮았으며,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인가. 새해가 되었다고 모두들 새출발을 다짐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이 곳곳에서 일고있다. 그 답은 바로 '나만이' 여사와 박미선씨중 누구를 닮느냐에 있지 않을까.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 사 장 유 월 탄
원 장 김 용 정
실 장 홍 윤 식
상임이사 김 현 해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원B/D 6층
☎ 736-6202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그림자, 나는 너의 그림자임을 깨달아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겠지요.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

중상, 모략, 시기, 질투, 전쟁, 질병, 기아 등 인간고통의 근본원인은 모두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의 소산들이랍니다.

여기,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내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소중하고 고귀한 인연의 도리를 일깨워 보고자 「**생명 나눔 실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후(死後) 장기 기증은 물론, 생존시(生存時) 장기 한쪽을 기증하여 죽어가는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본 모임의 **대표이신 석용산(공덕원 회주) 스님**은 이미 자신의 한쪽 안구와 한쪽 신장을 한 소녀와 소년에게 기증키로 결정했으며, 석지광 스님, 정휴휴 거사, 무량인 보살도 생전 기증회원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생명 나눔 실천 운동**」에 함께 하시어 인간의 숭고한 품성과 자비 사랑의 본래 심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참가는 못하셔도 「후원회원」이 되셔서 수술시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인연에 동참할 수 있으면 합니다.

총무 정 종 석 합장

회원분류

- 생전(生前) 기증회원
- 사후(死後) 기증회원
- 기정(指定) 기증회원(기증하고 싶을 때를 스스로 지정함)
- 후원회원 — 1구좌당 매월 1만원
- 후원구좌번호 — 부산은행 083-12-050967-0 김영호

후 원

청구그룹, (주)동환산업, 동아대 의료원, (주)고려원, 문학수첩

생명 나눔 실천 모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1동 370-5번지 용성빌딩 5층 공덕원
전화 : (051) 625-2253 · 2254, 627-5498

단체 '96 설계

조직·전법 새롭게 "대중속으로…"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

조계종복지재단 〈이사장 월주〉



재원마련과 불교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와 초파일을 기점으로 자비주간을 설정해 모금을 조성, 불교복지의 프로그램화 등을 추진한다. 2월초 장례예식장 및 납골당 확산을 위해 일본을 견학 시찰하는등 자료확보에 주력한다.

비구니회관 건립에 총력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금년을 '조직강화의 해'로 그동안 침체했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순회를 실시한다. 지역별로 비구니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후원회결성, 주소록 정비, 기금마련도 전개한다. 숙원사업인 비구니회관 건립에 총력을 쏟아 회관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불교혁신운동 방향 모색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지선〉



조직개편을 통한 회원 결속력 강화의 해로 설정했다. 종전 단체가입 중심의 조직에서 조직적 관리 및 연합체적 질적 향상을 위해 개인회원을 주축으로 조직을 새로이 개편한다. 또 불교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불교혁신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한다.

경승실소속 신도회 구성

경 승 단 〈단장 법타〉



스님위주의 경승협의회와 재가자위주의 경승진흥회를 구성하는데 진력할 방침이다. 또 각 경승실별로 '불교신도회'를 구성하고, 경승법요집과 경승활동 지침서, 경승회보 발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포교사업도 전개한다. 이외에도 포교원내 기초자료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교대사전' 제1권 펴내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



삼학원 개원,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불교대사전〉 편찬작업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삼학원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 계승을 위한 화엄학, 한국불교금석문, 선수행 등 진보적 불교학 연구를 펼친다.

〈불교대사전〉 편찬은 올해안으로 전 10권중 제 1권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계와 보시' 운동 폭넓게

한국불교재가회의 〈이사장 이기영〉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반대운동을 경주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서명동참자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총회때 결의했던 '지계와 보시' 운동을 불교계는 물론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실천지침을 마련하는 등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법인설립·수술비용 지원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



장기기증 및 헌혈운동, 신장이식수술, 골수기증 결연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각막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형편이 어렵거나 이식수술 후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창립 3주년 기념, 법인설립 기금마련 특별행사도 개최한다.

염주 보내기·30년사 발간

군 승 단 〈단장 강남석〉



군내 불교신행 활성화를 위한 각 군별 지원기능 확대, 군승의 자질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따라서 △장병 염주보내기 △전군 장교회 결성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지원 △군승요원 교육 등과 △군승 30년사 발간 △하안거 수행 △순직법사 추모법회 △ROTC입관자 수계식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항일·정화관련자료 수집

선우도량 〈상임대표 혜담〉



3월 제10차 수련결사를 개최하는 등 두차례 수련결사를 통해 '승풍진작과 올바른 승가상 확립'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한다. 또 부설기관인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는 '조선불교계의 항일운동'과 '불교정화 관련인사 증언채록' 등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자립·사단법인 추진

우리는선우 〈대표 박광서(사진)·남지심〉



올해는 창립 5년째를 맞는 해로 사단법인화를 이루어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을 도모한다. △난민구호사업 △국내외 승단지원 △육사생도 교화 △자비의 등 밝히기 등 목적사업을 비롯해 회원들의 수행과 교육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추진한다.

연대활동·환경기금 마련

공해추방불교인모임 〈상임부회장 목정배〉



구랍 29일 경기지부 결성을 시작으로 올해 지역본부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96년도 사업으로 △환경단체 연대활동 강화 △환경지침서 발간 △환경답사 및 성지순례 △회원배가운동 전개 및 환경기금마련 △환경세미나 개최 △전국 초중고 대상 환경포스터, 표어 공모.

인권학교·망월동에 법당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사진)·한상범〉



3월초 불교인권학교 개설, 4월초 여성불교인권학교 개설 등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후원회 구성을 통한 인권법당 마련과 양심수를 돕기 위한 모금사업을 전개한다. 또 광주 망월동에 법당을 마련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청소년 통일법요집 발행

전국교법사단 〈단장 김증환〉



'불교청소년의 해' 행사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통일법요집과 불교성전을 발행해 청소년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돈독히 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단행본을 발간하고 교법사단의 발전을 위해 교법사단 회보 창간도 준비중이다.

조직강화·후원회등 결성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이상번〉



최우선 사업으로 각 지구·지회의 사업보고를 정례화하고 후원회 결성에 주력한다. 국민제휴카드 홍보, 각 지구 사무실 마련 및 상근자 확보 등 조직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대불청 산하 각 지부·지회의 임원진의 질적 수준향상과 신행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을 펼친다.

문예상 제정…시인학교도

현대불교문학회 〈회장 수완〉



문학의 해를 맞아 불교문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교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현대불교문예상'을 제정해 등단 10년 내외의 역량있는 시인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문학관련 세미나, 불자문인들의 시화전도 계획하고 있다. 여름에는 낙산에서 해변 시인학교를 개최한다.

내실있는 조직사업 전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허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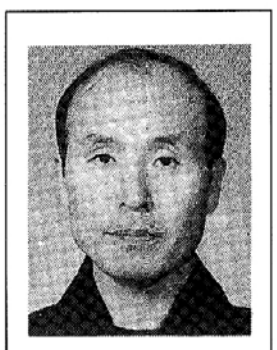
중앙지부의 위상 재정립과 전국 각 지부·지회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불련이 되도록 주력한다. 이밖에도 △성공하는 대불련 사업전개 △희망을 찾아가는 정책생산 △지부와 함께 나아가는 본부 △내실있는 조직사업전개 등에 힘쓴다

시 론

국민은 안락을 바란다

정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민생은 뒷전이고 정권의 쟁취에만 열중했다. 이승만정권은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친일파와 와 협잡하여 독재를 일삼았고, 박정희정권은 4·19혁명에 의해 쟁취한 민주정권을 군사구테타로 탈취했으며, 전두환정권은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권을 찬탈했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6·29선언이라는 속임수를 써서 노태우씨에게 정권을 넘겨주었고, 김영삼씨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정국을 3당합당으로 무산시키고 노태우씨의 지원을 얻어 정권을 획득했다.

지난 연말 김영삼정권은 벼락같이 과거청산을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같은 과거청산을 표변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던 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과거지사야 어찌 되었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면 오죽 좋을까마는 세인들은 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과거청산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올 4월에 있을 총선을 겨냥해서 세대교체와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중 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같은 의심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 같다. 새해들어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청산되어야 할 과거는 산적해 있는데 '상징적 단절'과 '조속한 매듭'이 강조되고, 안정론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청산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이제 파장분위기가 되고, 청산된 것은 별 것이 없는데 청산작업은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정치현실

올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여야 4당은 필승을 다짐하며 총선전략에 열중이다. 그런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정책을 개발하여 민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인기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의석 수를 많이 확보하는데 있는 것 같다. 또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차기 정권의 획득을 도모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불론 총선의 결과가 다음 정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권을 협잡이나 무력이나 간계로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마침내 개인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 서 있다.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에 관한 연설에서 '문화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쩐지 공허하게 들린다. 최근 2년새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대형 사건 사고들로 국민들의 정서는 하늘이 무너질지도 땅이 솟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감이 크다.

부처님 '상속법' 따르자

게다가 연말 정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물가도 이것저것 치솟아 '시장바구니 경제'가 크게 위축돼 있다. 그런데다 이미 사회 분위기는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총선에 들어섰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으로 서민들에게는 국가의 대사인 총선이나 문화의나라 건설 등이 '우리 일'로 피부에 와닿기가 쉽지, 않다. 정치나 문화가 인간이 살아가는 보람이자 대를 잇는 증거이며 21세기를 여는 잣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서민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기본 요건인 민생의 점검이 선결되어야 한다. 민생이 정치나 포장된 문화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아함 전륜왕경〉에 의하면 금륜보를 얻어 전륜왕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법을 배워서 그 법을 써야 한다고 한다. 상속법이란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연기법을 관찰하여 그 법을 실천하는 일이다. 모든 생명을 위하여 보시하고 덕망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선악과 죄복을 물어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며, 가난한 백성에게 재물을 주어 구제하는 것이 상속법이다. 이와 같이 전륜성왕은 세상을 다스릴 때 칼이나 작대기를 쓰지 않고, 상속법으로써 다스려 백성이 안락을 얻게 한다고 한다.

정치는 정권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재벌들과 협잡하여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 생명이 되어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병자년 새해에는 금뱃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륜성왕이 금륜보를 구하듯이 상속법을 배워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상속법을 실천할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금뱃지를 달아주어야 할 것이다.

금강불교대학 2540(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불교적 신심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불기 2540(199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구분 및 인원

ㅇ서울 : 가. 천태학과 : 30명(본종 승려에 한함)
나. 불교학과 : 120명 다. 법사과정 : 50명
ㅇ부산 : 가. 불교학과 : 120명 나. 법사과정 : 50명

2. 교수진 소개

이재창 교수 김영태 교수 원의범 교수 리영자 교수 권기종 교수
서윤길 교수 조용길 교수 김상현 교수 정병조 교수 김용환 교수
강동균 교수 곽만연 교수 최봉수 교수 심제열 교수 이 만 교수
이봉춘 교수 권탄준 교수 박경준 교수 김용표 교수 권오민 교수
이기선 교수 허경구 교수 지창규 교수 장휘옥 교수

3. 교육연한

가. 불교학과 : 2년(야간) 나. 법사과정 : 1년(야간)

4. 응모자격

ㅇ불교학과 :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96학년도 졸업 예정자
나.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교과 이상을 필한 자
ㅇ법사과정 : 가. 금강불교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나. 불교전문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불기 2539년(1995) 12월 2일 (토)부터
불기 2540년(1996) 2월 8일 (목)까지
(단, 법사과정은 서울·부산 교무과에서만 교부함.)

1) 서울 : 교무과 (464-3306, 465-4515)
서울 성룡사 (336-2052, 333-2052)
서울 명락사 (889-7272)
서울 삼룡사 (496-3839, 438-8333)
서울 명화사 (854-5295, 868-4962)
서울 구강사 (471-4800)
안양 대안사 (0343-21-7349, 24-7578)
성남 화성사 (0342-42-8360)

2) 부산 : 교무과 (삼광사 內) (808-0730, 808-7111~5)
울산 정광사 (0522-77-7100~3)
마산 삼학사 (0551-44-6464, 42-6610)
대구 대성사 (053-651-6108, 624-0542)
김해 해성사 (0525-36-3585)

나. 원서접수

1) 기간 : 불기 2539년(1995) 12월 2일 (토) ~ 2월 8일 (목) 오후 5시까지

2) 접수처

ㄱ) 서울 : 교무과(서울 성동구 성수 1가 656-302호 동남빌딩 3층)
뚝섬 전철역 밑

ㄴ) 부산 : 교무과(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삼광사 內)

7.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나.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반명함판사진 5매
마. 불교전문교육 2년 이상 수료증명서 (법사과정 한함)

8. 원서료 및 전형료

● 불교학과 : 가. 원서료-5,000원 나. 전형료-10,000원
● 법사과정 : 가. 원서료-5,000원 나. 전형료-20,000원

9. 면접일시

● 서울 : 가. 불교학과 - 불기 2540년(1996) 2월 24일 (토) 오후 6시
나. 법사과정 - 불기 2540년(1996) 2월 23일 (금) 오후 6시
● 부산 : 가. 불교학과 - 불기 2540년(1996) 2월 10일 (토) 오후 6시
나. 법사과정 - 불기 2540년(1996) 2월 12일 (월) 오후 6시

9. 합격자 발표

가. 서울 : 불기 2540년(1996) 2월 24일 (토) 개별 통보함
다. 부산 : 불기 2540년(1996) 2월 12일 (월) 개별 통보함

10. 특 전

가. 재학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나. 본 종단 신도가 아니라도 불교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음
다. 법사과정 수료 후 본 종단 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서울금강불교대학 교무과 (02-464-3306, 465-4515) 또는 부산금강불교대학 교무과((051) 808-0730, 808-71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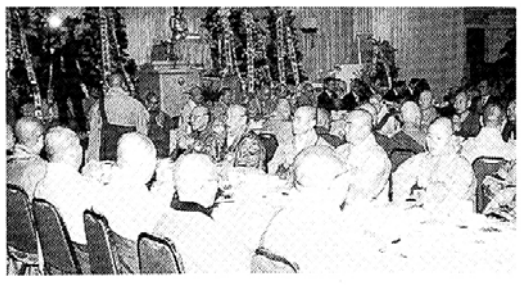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김우석 내무장관 월주스님 예방

승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5일 김우석 신임 내무부 장관의 신년예방을 받고 국립공원 관람료 통합징수 및 공원 입장료 30%를 문화재 보수비로 지급할 것 등 교계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면〉

이자리에는 총무원 부장스님과 석명철 내무차관보가 배석한편 이에 앞서 월주스님은 구랍 28일 신임 김영수 문체부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인천 흥륜사 30돌 기념 법회

인천 흥륜사(주지 법륜)는 지난 6일 오후5시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에서 '흥륜사 중흥불사 30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일공스님과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신맹순 인천시의회의장, 이현만 인천경찰청장, 조영장의원, 조진형의원, 심정구의원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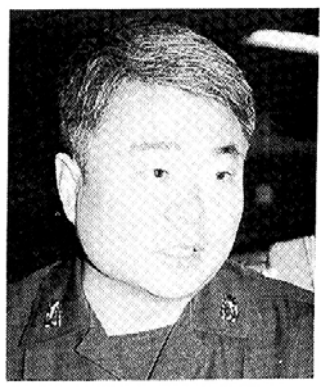


나라와 국민 위한 서울경승 기원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자우)은 지난 9일 본청 1층 구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서울경승기원 및 황용하 청장취임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은평경찰서 경승 자용스님, 북부경찰서 경승실장 동광스님, 월운, 법성, 월암, 혜철스님과 경찰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96 인물



대북불교방송 말씀 **한상길 법사**

"대북불교방송은 북한 동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방송입니다. 하루빨리 통일되어 함께 법회를 보고 싶습니다."

남북이 분단된지 45년만에 북한 인민군과 주민들에게 불음을 전하는 대북불교방송이 구랍 29일부터 실시됐다.

금·토·일 3일간 기독교 천주교와 함께 하루 15분 3회씩 돌아가며 방송하는 대북불교방송의 원고작성에서 방송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한상길 법사(국방부 호국원 광사 군법사).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북한이 '종교 동토의 땅'이기에 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45분씩 원고쓰고 방송도

"佛音 띄워 통일의 길 넓혀요"

한달 4회분을 하루에 녹음하기 때문에 자료정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한법사는 내외통신 북한자료를 샅샅히 뒤져서 북한 현실에 바탕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북송하고 있다고.

"처음 시도여서 혼자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군법사 모두가 참여하고 법문하는 방송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라는 한법사는 앞으로 법문형식을 탈피하여 대담, 종교체험기, 꽁트드라마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불교방송은 '자유의 소리' '진실을 알라'등의 프로그램으로 1백55마일 휴전선에 배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밤 10시부터 새벽시간까지 주로 심야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다.

한상길법사는 통도사 진철스님을 은사로 득도(80년),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81년), 군법사 임관(83년), 소령으로 진급(90년) 했다.

김원우 기자

법회 안내

낙산 원각사 (02)763-521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광주 황룡사 (062)375-76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 7시 30분
◇조실 천운스님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부산 범어사 (051)508-312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제주 관음사 (064)58-8561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관음불교학교 매주 금 오후2시
◇주지 중원스님
자비교실(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비라(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고성 옥천사 (0556)72-0100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미타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능해정사 (032)519-555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한암문도회 대표 추대



인허스님은 구랍 27일 열린 한암문도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문도회 대표로 추대됐다.

파계사 주지에



성우스님(홍콩 홍법원장)이 구랍 19일 팔공산 파계사 주지로 임명됐다. 전 주지 도원스님은 파계사 금당에 주석.

태고종, 송암동산 위문법회



혜초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을 방문, 금일봉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28일 쌍계사 주지 진산식



철형스님은 오는 28일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에서 진산식을 갖고 신임 주지로 취임한다.

불우 어린이 노인에 성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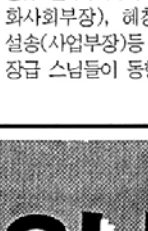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지난 11일 장애인과 소녀소녀가장·불우어린이·노인에게 동지포덕금을 전달했다.

호주정부 초청 문학행사



고은씨(본지 논설고문)는 호주정부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월9일까지 시드니를 중심으로 호주 전역에서 강연·시낭송회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갖는다.

불교단체총연합회 신년하례



김명윤씨(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장)는 오는 26일 오후6시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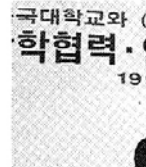
동국대에 발전기금 5억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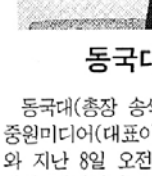
왕청일씨(이호재단 이사장)는 구랍 28일 오전10시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9천만원을 송석구 총장에게 전달했다.

광복 50돌 행사 총리표창 받아

김형균씨(월간 동쪽나라 발행인)는 광복50주년 기념사업회 공식행사였던 월간 동쪽나라 주최 어린이 3·1만세 재현 행사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밝은마음…' 스티커 보급



김기옥씨(법시사 이사장)은 '밝음마음 밝은사회' 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태극기와 무궁화를 인쇄한 엽서와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02)859-8999

동산법당 점안식 봉행



김재일씨(동산반야회 장)는 오는 21일 오전10시 서울 견지동 웅전갤러리 3층에서 동산법당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한다.

국립극장 무용단장 맡아

국수호씨(중앙대교수)가 지난 9일자로 국립중앙극장 산하 국립무용단장에 임명됐다.

게시판

▲수족침 수강생모집=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성인컴퓨터교실, 수족침, 수학탐구교실 등 96년 1기 강좌를 개강, 회원을 모집한다.
(02)412-6077

▲어린이불자교실=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구도회법당에서 제4회 어린이 불자교실을 개설한다. 회비 무료. (051)462-5062

▲덕유복지관 직원모집=석왕사 부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사회복지사 3명, 보육교사, 어린이집 시설장 각 1명씩을 모집.
(032)325-2161

▲철야정진 법회=조계사대승불자회(회장 이엽기)는 오는 20일 등명낙가사, 치악산 구룡사를 순례하고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일본 장묘업계 시찰단원 모집=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은 교계 장례제도 정착을 위해 일본 장묘업계 시찰을 계획, 단원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방문기간은 2월 10일~14일. (02)723-5101~2

부음 김재영법사(동덕여고 교사) 의 부인 김송자씨가 지난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내마음의 안중근' 재출간

팔공산 약사암 일여 스님



일여 장영순스님(팔공산 약사암 주지)은 최근 일본 조동종 대립사 주지 사이토 다이켄스님이 쓴 〈숨겨진 진실—내마음의 안중근〉의 증보 번역집을 재출간 했다.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 형무소에 수감되어 사형을 당할 때까지 5개월간을 줄곧 지켜보았던 일본 헌병간수 치바 토시치의 눈으로 본 안중근의사의 애국충정을 담고 있다.

월주스님 나눔의집에 위문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구랍 29일 정신대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 생활필수품과 다과류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총무원 집행부의 오찬을 겸한 이날 방문에는 현응(기획실장), 원우(재무부장), 시현(문화사회부장), 혜창(호법부장), 설송(사업부장)등 10여명의 부장급 스님들이 동행했다.

동국대·중원미디어 산학협정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주)중원미디어(대표이사 송재건)와 지난 8일 오전11시 총장실에서 산학협정조인식을 가졌다. 중원미디어는 영화제작을 위한 연구비로 동대 멀티미디어 연구소(소장 송석구)에 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연구소 작품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중원미디어로 하되 이익발생시 10%를 연구소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조계사 신용협동조합 개원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견지동 72번지 고려원양빌딩 1층에서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개원식에는 월주 혜초 운덕스님 등 각종단 총무원장을 비롯 1백여명이 참석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신협의 이익금은 수행·포교·교육불사에 쓰여질 것"이라며 불자들의 조합원가입을 당부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나와 내춤과 이웃은 하나"

산문밖의 禪

1인창무극 명인 공옥진 씨



"눈물·웃음·恨 춤으로 익고 세상보는 눈도 익어"

공연수익 이웃에 회향…"학처럼 가볍게 날고파"

인간의 삶에서 눈물과 웃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를 가끔 이같은 질문에 휩싸이게 하는 예인(藝人)이 바로 1인창무극의 명인 공옥진보살(63)이다. 그녀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대학로 두레극장에서 또다시 질펀한 웃음과 가슴 도려내는 울음의 무대를 진설하고 있다.

작은 체구서 나오는 신명

그녀가 등장하면 공연장은 바다가 된다. 홀로 바지락 캐고 산버섯 따며 살아가는 영광 앞바다의 한 서린 파도더미를 관객들에게 왈칵왈칵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때로는 배꼽잡는 웃음의 파도를 때로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파도를 그 작은 체구로 일으켜 세우는데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떤 사람은 그 힘을 한 서린 여인의 삶이 토해내는 신명(神明)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명으로 들뜨다 못해 폭발해 버린 '끼'의 체광(體光)이라고도 한다.

둘 다 맞는 얘기다. 공옥진씨의 입담과 춤사위는 한과 신명과 끼로 얼기설기 얽어진 눈물과 웃음의 바다에서 용솟음치는 파도다.

"새삼스레 나 살아온 야그가 뭔 필요 있겄소. 사람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인디. 허나 나는 내가 감당하기에 오라지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혔응께 이렇게 춤이라도 춰야 살아 있는 맛을 느끼는 것 아니겄소."

오라지게도 무거웠던 그녀의 짐. 이제 그녀는 60년 이상을 짊어지고 온 그 무게를 자신의 몸보다 가볍게 간수하고 있다. 춤을 출 때마다 한 웅큼씩 그 무게를 털어 내는 '마음공부'를 착실히 다져 온 까닭이다. 그 마음공부는 젊은시절 3년여의 절집 생활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현실을 현실인채로 부딪히며 삭혀 온 처절한 생존의 공부였다.

죽기 위해 물에 몸을 던져야 했고 살기 위해 다리 밑의 거지·장애인과 섞여 찬밥을 먹어야 했던 고단한 삶. 벙어리 동생과 곱사등이 조카딸의 억울하고 서러운 죽음을 온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한서린 목숨이었기에 공옥진씨는 지금 무대에서 춤을 출 수 밖에 없다. 그녀의 춤은 그녀의 한을 털어내는 공부다.

"애시당초 이 야속한 삶 자체가 공부란 생각은 못했제. 그저 하루하루 한 달두달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응께. 나이를 먹으며 내가 야무진 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여."

억척스레 삶의 여정을 걸어 온 촌아낙의 모양새를 그대로 갖추고 살아가는 공옥진씨는 가능하면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미 그것도 그녀의 속 공부 과정일 것이다. 공연에서 얻은 돈을 몽땅 털어 어려운 이웃에게 주어 버리는 마음 씀씀이가 사실은 그녀를 더 부자이게 한다는 것을 기나긴 한의 세월에서 깨달은 까닭이다. 영광군에 1억을 내놓고 장학회를 만들었고 또 최근에 받은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광고 출연료 7천만원도 몽땅 불우이웃돕기에 내놓았다.

그녀에게 이 일은 매우 사소한 일이 되었다. 아버지 심봉사를 이별하고 인당수로 가는 심청이가 되기도 했고 당달봉사 애기봉사 꼽추봉사가 되기도 했다. 원숭이가 되었고 욕심많은 놀부가 되었고 또 가난해서 복받은 흥부가 되기도 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공옥진씨는 이미 우리 시대의 슬픔 그 자체이기도 하고 희망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녀는 공연의 처음과 끝에 합장인사를 한다. "나와 내 춤과 당신 그리고 나와 당신의 웃음과 눈물은 모두 하나요"라며.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는 공옥진씨는 지난해 가을 담석증으로 세차례의 수술을 받아 아직 몸이 성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악을 때로 익은 공옥진씨의 삶과 예능은 영광의 촌 마을에 그녀를 놓아두지 않았다.

"쓰러져 죽더래도 무대에서 죽어야 제."

이 터지기 직전의 예기(藝氣)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사랑이 관객들에게 뭉클한 희망을 주고 있음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쓰러지더라도 무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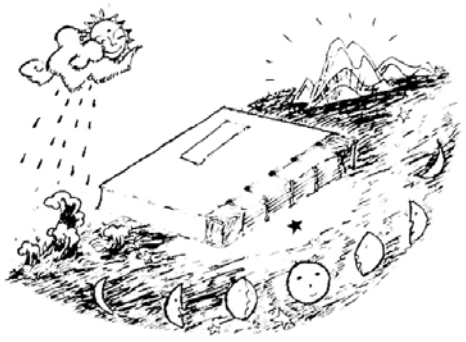
"그들의 한을 내가 대신 몸짓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정작 그들을 분노케 했으니 내가 이 짓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엉엉 울며 생각했었다"는 회고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서야 했다. 그대로 널부러져 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녀의 한은 너무나 깊었고 그녀의 끼는 너무나 뜨거웠던 것이다.

이제 공옥진씨는 그녀가 말하는 속 공부로 인해 익을대로 익었다. 춤이 익었고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 익었다. 그리고 그녀의 한도 익고익어 눈물과 웃음의 파도로 출렁이고 있다.

스스로 학이 되고 싶다는 공옥진씨.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미 그녀는 학이 만들었다"는 설명이 가슴 아플 뿐이다.

그녀가 초창기 무대에서 속칭 '병신춤'을 선보였을때 장애인들에게 받은 항의는 빗발치던 몰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임연태 기자



삽화 · 이기선

실상봐야 역사 바로 세운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⑰

현정(顯正)

참회로 共業 녹일때 법계 청정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뛰어넘어야 하고, 건너가야 한다. 뛰어넘는 것은 초월이고, 건너감은 도피안이다. 도피안은 어디에 있는가. 반야심경 결구사에 있다. 결구사라기보다 결정주(決定呪)일 것이다. 모든 일의 완결미를 거두는 결정주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람은 미결사로서 일의 끝머리에 오고 마는 것이다. 완전치 못하고, 매듭이 교묘하지 못한 곳에서 마감을 하기에 뒤가 어지럽다.

그런데 심경의 결정주는 그렇지 않는듯 하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그곳은 깨침이 이룩되는 곳'이라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영부영 이것저것 온갖 무명삼독에 뒤엉켜 살고 있다. 무명삼독이 행복을 점지하는 현세적 결정주라고 착각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태우고 반란도 하지 않고 삼독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야단이다. 그 어지러움이 어째서 생기하였는가를 미리 짚어 보는 사람은 없다. 가라앉지 않는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났다면 일거리를 잡기전에 흐림과 어지러움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변통이 된 것이다. 중론 귀경게에 '생멸(生滅) 거래(去來) 단상(斷常) 일이(一異)' 이것이 적확하게 부정되고 그 부정의 상태에서 초월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모두가 사특한 생활사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모든 중생은 나고 죽고, 시간속에 가고 오고, 오래 있기도 하고 바로 사라지기도 하며, 또한 깊은 듯 하면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나고 오고, 항상 하고 동일한 것을 좋아한다. 그 반면에 사라져 죽어가고, 끊어져 달라지면 싫어한다. 그러나 이 '생멸(生滅) 거래(去來) 단상(斷常) 일이(一異)'의 팔부(八不)가 항상 공생하고 공멸하는 법계에 있는 것이다. 눈 뜨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 사물이 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착각을 일으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고집한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전도되어 없다고 한다.

시공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있는 것이다. 시공속에는 역사가 이룩된다. 시간과 공간속에 행업된 과보는 실상 그대로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짧은 육안적 시각이다. 우주의 눈으로 보면 일체사가 지나간 시공속에 역사적 현존재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쉬운 말이다. 일체 중생이 살아온 과거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공생이 함께 참회하여야 한다. 한두 사람만 밝게 되고 밝게 된다고 하여 이 법계가 청정히 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업이 모두 공제(共濟)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능소(能所)가 체루비읍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우주에는 무수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 하나하나에 정직성이 없다면 우주는 혼돈하게 된다. 혼돈의 그것이 자기만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시공이 어지럽게 된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시공을 맑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시공을 맑히면서 살아왔는가 반문하여 보아야 한다. 과거 시공에 더러운 때를 남겼다면 그 때를 남기게 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된 시간부터 이제의 시공을 청정히 하여야 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오늘 목욕하여 청결히 하는 사람은 지금의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다. 어제 그제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벗겨내는 것이다. 지금의 때는 바로 씻겨질 수 있으나 어제의 때는 조금 틀리어 놓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일도 매한가지다. 과거를 바르게 투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공속에 이룩된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진과자의 명상이 필요하다. 죄업자의 명상은 어찌보면 시공을 건너뛰는 묘한 마음을 가질런지 모른다. 이 묘한 마음이 되도록 지금의 역사가 정직으로 염력되어야 한다. 삿된 것을 부시고 바른 것을 세우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은 능동자의 자기 참회가 거울처럼 투영되어야 한다. 짐짓 남만 참회하라고 닦금질하는 것은 요란한 빈 수레가 지나갈 뿐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건너가야 하고, 건너야만 한다. 저 역사의 시공속에서 한점 유루의 때가 없는 순후한 깨침이 있는 곳으로 건너 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름을 세우는 길이다. 심경의 결정주를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쳐 외워 행동하는 것만이 정법을 세우는 길이다. 새해 바로세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1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대전 문경서적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1996학년도 제5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정진·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1. 모집과정 : 법사과정·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회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1월 5일 ~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지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96 불교학술 국제행사 '풍성'

올해 불교계는 5건 이상의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예정돼 있어 그 어느해 보다도 풍성한 학술마당이 펼쳐질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과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공동), 동국대,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한국불교연구원, 전통불교연구원 등 종단과 각 학술단체들은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초청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중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다.

오는 19일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가 고려대장경연구원(원장 김지견)도 10월 '화엄학을 다시 생각한다(가제)'를 주제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인민대 교수등을 다수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동대 90주년 기념세미나등 세계불교 현주소 조명

정보화·수행법등 토론 한국불교 미래상 제시

입력 CD-ROM시연회와 '정보화 사회와 불교' 등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의 첫 포문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관스님(해인사 주지)의 '대장경 전산화의 사상적 의의'에 관한 기조연설을 필두로 민영규 교수(연세대)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대장경'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의 '팔만대장경 보존의 철학'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의 '불전 전산화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0월 24, 25일 이틀간 동국대 학술문화관서 개교 90주년 기념 세계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일본등 4개국 10명과 국내 10명등 국·내외 20명의 석학들이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대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그러나 올해 가장 규모가 큰 국제 학술대회로는 조계종 교육원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개원 기념세미나를 꼽을 수 있다.

'세계 불교수행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주제로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스리랑카, 미얀마, 티벳,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9개국의 스님 및 학자들을 대거 초청 세계 불교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세계 각 나라 불교수행공동체의 소의경전과 수행체계를 조사연구하고 종합대조함으로써 현재 세계불교의 교학전통과 수행전통을 조망하는 것.

따라서 각 나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의 교학전통과 수행체계를 비교·조명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불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내용도 각 나라 불교의 교학전통 및 교단통사, 경·율·논 삼장과 계·정·혜 삼학의 수학비중 탐구, 그 사회에 있어서의 불교 및 수행자의 위상과 역할 및 전망, 불교학 연구 현황등으로 광범위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열어온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은 11월경 '종교와 국가흥망의 논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통불교

19일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완료 기념세미나

대장경, 진리찾는 정보의 보물

소홍렬교수 불교사상 정보이론에 접맥

민영규교수 "고려대장경 남해도서 조성"

해인사 대장경연구소가 19일 개최하는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기념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사상을 정보이론에 접맥시킨 소홍렬교수의 논문과 고려대장경의 남해도일대서 조성됐다는 민영규교수의 논문은 크게 관심을 끈다.

소홍렬 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불교적 정보이론'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불교경전은 마음의 깨달음을 위한 정보의 보고이며, 진리를 깨달아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정보의 보물'이라고 주장했다.

소교수는 업보와 윤회는 한 영혼의 정보기능과 인연이 되어 전자의 정보내용이 후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천리안의 능력등 마음의 정보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는 경전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런 경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교의 기본개념인 업보, 윤회 등은 정보이론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좀 더 새롭고 명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들 개념은 불교적 정보이론의 개념으로 정보기술시대의 문제를 불교와 불전에 근거한 정보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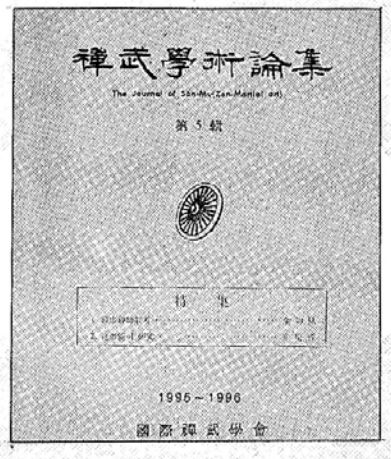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이 실제로 조성된 지점은 강화도 보다는 남해도와 그 대안(對岸) 진양군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로 민교수는 첫째, 진양군과 하동 남해도는 당시 사재(私財)를 기울여가면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을 경영했다는 당시 권문세가였던 최이(崔怡)와 정안(鄭晏) 선대(先代)의 식읍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둘째로 남해도와 그 대안 진양군은 지리적으로 천혜(天惠)의 전술적 요지를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천연자원 등 제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바닷물에 담그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경판 다지기' 작업이 용이한 반면, 강화도는 간만의 차가 심해 이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셋째, 남해도 제작설을 증명하고 있는 박상국씨의 연구결과를 들어 위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교수는 또 대장경 재조(再造)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1237년 당해에 1백70권이 제조된 것과 1년전인 1236년 정안의 묘법연화경 7권이 간행된 시기적 차이로 보아 정안에 의해 이미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으며, 따라서 대장경 재조를 국책으로 돌리게 한 장본인 역시 정안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국제선무학회에서 발행한 '학술론집' 5집.

禪武 정신·육체건강 돕는다

체육·의학속 선수행등 24편 수록

'선무학술논집' 5집 나와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원광대 교수)가 선체육, 선의학, 선문학, 선사상 등 선의 각 분야를 다룬 〈선무학술논집〉 제5집을 발간했다.

이 논집에서 '선무도가 인격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교육조건을 갖추고 있어 선수행의 한 방법으로 창안되어 발전해 왔다'는 김철 교수는 '선무수행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육체적 황폐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선무(禪武)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밖에 김정명(명지대)교수는 '禪과 신체과학'연구에서 "선문답, 화두선, 초월체험등 선적 접근의 흥미로운 주제가 체육이나 스포츠 상황과 관련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행적 차원의 몸과 그 움직임에 대한 접근과 관찰, 연구가 부재한 신체과학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논집에는 △노인체육에 있어 '禪受容' 방법에 관한 고찰(최종인, 원광대) △한국의 신장신앙과 신장상 연구(김정희, 원광대) △달마도의 연구(최순택, 원광대) △태권도와 선수행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김홍식,동신대)등 모두 24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사성제·연기법도 없다'고 한 뜻은

문 반야심경에 보면 무안이비설신의, 무고집멸도, 무무명 등 12처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연기도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까닭에 사성제도 연기법도 없다고 하는가요?

〈최영철·서울 구로구〉

답 반야심경을 거듭 음미해 보세요.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모두 공했음을 비춰보시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것 하나 고정됨이 없이 찰나로 나투며 돌아가니까 어느 때를 '나'라고 말할 수 없어 일체는 공하였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이 되었다가 남편 동생 친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를 '나'라고 고정되게 말할 수 없지요. 그와같이 일체는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라고 규정지을 게 없습니다. 그냥 공이지요. 따라서 '나'가 공했는데 사성제다 12연기다, 12처다 할 게 없지요. 그래서 무!라고 한 것입니다. 깨달은 자리에서 보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잘 음미해 보세요. 내가 늘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살라 함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정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증불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그 무엇이 없고 오직 마음이니 보태도 늘지 않고 빼도 줄지 않고, 또 불구부정-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무!공! 할 밖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리불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디 화엄경이 따로 있어서 화엄경이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살이 이 자체가 바로 화엄경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 물을 것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따질 것 없이 지금의 이 생활-바로 화엄경 속에서 소타고 피리부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병통이라고 하느냐? 실은 병통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병통인 것입니다.

왜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지요

문 사람마다 신·구·의로 지은 업이 몽땅 입력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회하면서 왜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하는지요. 왜 내생에 대해 아무 것도 짐작하지 못하는지요.

〈박상훈·경기도 의정부시〉

답 그것을 알려면 마음공부해서 깨닫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몸 바꾸며 살아왔던 나와 지금의 나상봉을 해야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의 나를 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보고싶어도 지금의 나를 보라고 했습니다만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 열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소를 타고 못내리니 무슨 병통인가

문 십우도를 보고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그래 내가 소를 타기는 탔구나. 또 소를 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구나'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나기를 '소를 탔는데 소에서 내릴려고 하지 않으니 이건 또 무슨 병통인가' 했습니다. 스님 이게 어떤 병통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김경동·부산 동래구〉

답 소에서 내리면 그냥 송장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 하실 때 그냥 소를 타고 피리불고 다니지 않습니까?

소는 마음내기 이전 영원한 근본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게 없으면 송장이지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구요.

그것을 쉽게 말해 소라고 표현한 것인데 지금 생활하고 말하고 전해듣고 돌아가니까 그대로 피리를 부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니까 십우도로서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불자라 교회·성당에 가면 꺼림칙한데…

문 할머니 어머니 모두 불자이십니다. 저도 영향을 받아서 불자가 되었습니다만 친구를 따라 교회나 성당엘 가면 그곳의 의식절차를 곧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꺼림칙한 생각이 듭니다.

〈황영록·서울 강남구〉

답 불교는 어떤 특정형식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도리가 '불'이고 우리 생활 자체가 '교'입니다. 불교란 그대로 진리임을 뜻합니다.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주님 찾고 하나님 찾으니까 다른 줄로 아는데 주님이란 나의 근본 뿌리를 말함이요, 하나님이란 일체만유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자체로서 하나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불교와 다를 바가 없고 모두 한 통속이란 말입니다. 다만 그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대상을 세워놓고 밖으로 찾으니까 다른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성당엘 가든 교회엘 가든 여건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되었거든 그들이 밖으로 주님 찾을 때 처사님은 나의 근본을 염하면 될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 소문에서 소문으로!!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오링테스트—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법현 법사 특별상담!!

과학적인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 질병과 재앙에서 벗어나 건강과 행복을 찾는 비법의 상담
- 몸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체질에 맞게 감별하여 드립니다.

만성질병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증,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 사찰에서 사십구재와 영가천도재를 하실 때 영가를 명당도예에 모셔주면 편안한 영혼이 되어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여 준다.



조상 묘지 상담
모든 질환과 액운은 조상묘 때문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 개발한 명당도예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히 모시면서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여 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명당도예에 모시거나 묘지 옆에 묻어 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복이 이루어진다.

◦ 묘지에 함부로 손을 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 명당도예는 묘지 옆에 묻어만 주면 영혼이 편안하게 된다.
◦ 묘지가 없는 영혼도 명당도예에 모셔 주면 편안한 영혼이 된다.
◉ 각 사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강의도 하여 드리고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토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 상담시간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상담장소 : 불 심 포 교 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 뒤)

상담문의
051) 465-5100, 467-5200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한국승가대학원
불기 2540년 수강생 모집<전기>

■ 모집기간 : 1월 17일 ~ 2월 28일까지
■ 모집인원 : 30명 (남·여 나이 불문)
■ 입학자격 : ① 스님
② 사찰·포교원을 운영하는 분
③ 사찰·포교원 개원을 계획하는 분
■ 교육기간 : 2년(매주 일·수요일 오후 2시 30분)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명함판 사진 3장
③ 승려증(신분증) 양면복사 1부

※ 위 서류를 구비한 후 모집기간 중 일·수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사이 부산강의실에 오시면 수강신청서 작성과 함께 담당 교수님의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불교 초종파 교육기관
한국승가대학원부산강의실
부산시 동구 좌천동 557-2(오비신호등 옆 3층)
전화 (051) 645-6224, (053) 952-8711
팩스 (053) 955-6579

문화복지 폭 넓혀 '삶의 질' 향상

신임 문화체육부 김 영 수 장관

수요 인터뷰



—장관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계시면서 각 부처의 사안들에 대해 낱낱이 파악하고 계신 행정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펼쳐갈 문화정책을 들려주시지요.

문화·여가 기회 극대화

▲말씀하신대로 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업무내용을 직·간접으로 파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문화정책은 국민이 문화 여가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하는 것이며 문화를 생활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올해를 '문화복지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해로 설정하고, 앞으로 즐겁고 활기찬 사회조성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종교백화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종교가 신행되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화해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도 갈등과 반목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무행정에 대한 방침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인구 중 불교가 49%, 개신교가 36%, 천주교가 12%, 유교가 1%, 기타종교가 2%로 나타나고 있는 등(94년 통계청 사회지표조사) 전형적인 다종교사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 종교가 서로 화합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정부정책 입안 또는 시행시 자문, 검토, 건의 등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무행정 여건을 내실화 할 것입니다. 종교자료실을 신설 운영하는 등 종교현상관련 자료를 수집 정비하고 종무담당요원의 자질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종교연합기구 등의 연합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종교계의 자율적 화합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종교단체의 건전사업과 도덕성 회복운동 등 범국민적 관심 분야에 대하여는 종파를 초월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해는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관련, 경주통과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불국사·석굴암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불교성보가 많이 보존된 경주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현재 경주통과 반대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주고속철 노선문제에 대해 이젠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요.

▲경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는 천년 고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의 10%, 국가지정 사적지의 20%인 총 784건의 문화유적이 전 시가지에 분포돼 있고보니 경주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발하면 문화재 훼손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현재 입장은 경부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하되, 문화재 훼손은 최소화 한다는 쪽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각계의 여론을 수렴, 고도인 경주의 경관과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년 역사의 뿌리 깊은 조상의 유업을 보존하고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문화적 과제라고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대해 관심도 큰데요, 예산책정이나 사업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96년 문화재관리 예산은 총 909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776억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궁 능 원 정비 사업비가 130억원, 고도돈화권 정비사업비가 114억원, 시·도 단위문화재 보수지원 사업비가 334억원, 사찰소장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지원 사업비가 40억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가 68억원, 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타 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이와같은 예산으로 전국 6900여건의 지정문화재를 완벽하게 보존관리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매년 예산의 대폭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투자가 장기적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고속철 해법 찾기

—올해는 '문학의 해'인데요 문학계에도 물량주의 상업주의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문학의 발전을 위해 전시적인 행사 중심보다 문학의 순수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올해 문학의 해는 지나친 행사위주보다는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여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문학의 해 슬로건 처럼 국민들의 삶과 함께 발전하는 문학의 해가 되도록 사업의 기본방향을 문학의 세계화, 문학창작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우리문학의 세계화와 노벨문학상의 수상 기반을 잠을 예정입니다.

—2002월드컵 유치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애틀랜타 올림픽도 열려 금년 체육행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실 텐데요.

▲금년에 우리나라 체육계의 과제는 6월에 결정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국내유치와 7월부터 시작되는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이외에 금년도 체육정책은 국민복지차원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년 국정에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영란 기자

종교간 자율화합 교량역…종교 자료실등 운영

'문화재훼손 최소화' 보존·계승으로 민족얼 고취

나의 수행일기

맹란자 〈역문관서우회 회장〉 증



결국 남을 사람만 남게 되었다. 열댓명을 앞에 두고서도 선생님의 강의는 시종여일하게 진지하였다. 그때 함께 공부한 이로는 나형수 해설위원, 윤호균 교수, 시인 주성윤, 지정관, 박상길, 조요연, 박영자, 김영희 등이 있다. 홍정식, 원의범, 황성기, 홍영진, 황청오 선생님들께서도 돌아가며 사이사이 특강을 해주셨다. 이원명, 서윤길, 차용부, 오형근 선생은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가끔 그곳에서 만나보게 되는 얼굴이었다.

일요일이면 친구들이 불러내는 미팅약속도 마다하고 서툰 가부좌를 취하고 법당에 앉아 화두를 들어 보기도 했다.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무엇때문이냐? 바람때문이다. 깃발때문이다.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움직이는) 때문이다."

무언가 잡힐듯, 알듯 말듯한 것들이 머리속에서 깃발처럼 나부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의 잠을 깨우는 그런 바람의 살랑거림이 좋았다. 무언가 얽크러진 내부의 통로를 확 트이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낯선 한문글자와 그속에 깔린 심오한 금강경의 오의는 쉽게 알아지지 않았지만 빠지지 않고 말석에 참여하였다. 여담이지만 사모님(김동화선생님)께서는 청강하고 있는 내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다고 하셨다. 고개를 끄덕끄덕 열심히 무얼 쓰다가 또 끄덕끄덕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다. 타계하시기 전까지도 나만보면 그 말씀을 되뇌이셨다.



그날도 댓줄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다. 갑자기 당한 아버지의 도산으로 집안이 파산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내 마음속에도 말못할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들어 있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여도 금새 눈물비가 되어 쏟아질듯…. 나는 하심을 하고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아있었다. 일요일이 되면 절에 가는 일 말고는 달리 할일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셨다. 철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부셨던 대학 3학년의 여름방학.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이 많았다. 어머니 모르게 휴학계를 제출해야 했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시청 부녀과 교양지도계로 출근을 해야 했다. 열심히 해오던 〈실험극장〉의 연극활동도 그만두고 차를 나눠 마시던 남자친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혼자 천길 나락으로 떨어진듯 아니면 외딴섬에 혼자 갇숙히 들어와 앉아 있는 심경으로 말을 잊고 지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타심통으로 관해 보셨던지 칠판에 커다란 글자로 이렇게 쓰셨다.

"有求면 有苦, 無求면 無苦"

이 여덟글자가 그때 내 가슴의 멍울을 관통시켜 버렸다.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다. 그렇다. 나는 여지껏 무엇때문에 끓탕을 하고 있었던가. 손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놓치기 싫어 안타까워 하기때문에 생긴 번민이 아니던가. 떠나갈 것들을 모두 놓아버리면 아무 고통도 없을 것을 나는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미망의 한 껍질을 벗고 나온 듯 눈앞이 원히 트이는 것 같았다. 아마 이때부터 나는 놓아버리는 습성을 익히게 되었던 것 같다. 억지로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버리는 쪽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된 데에는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도 함께 작용을 했던 것 같다.

1973년도 쯤이던가? 스님께 볼일이 있어 뚝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진흙밭을 지나 봉은사 다래헌으로 찾아갔다. 스님은 전축에 불어관 '어린왕자'를 걸어두고 계셨는데 "마침 '버리는 주간'이니 이 방안에서 갖고싶은 것을 무어든 골라보라"고 하셨다. 그때 모짜르트, 베토벤, 그리고 로망롤랑이 쓴 일서(日書) 몇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보다도 "인도의 전국민이 모든 걸 갖게 되었을 때 자신도 그 물건을 갖겠노라"고 한 간디의 말을 스님이 쓰셨는데 거기서 받은 감동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다.

광수에도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는 힘든 고생을 끝내 감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져버리셨다. 어린 동생들은 아버지가 가 계신 서모밑으로 들어가야 했다. 머리 굵은 나는 떨어져 나와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다. 정각사 광우스님 곁이었다. 어느해 추석이던가. 고독한 내 존재가 남의 눈에 뜨일까 싫어 촛불을 켜놓고 밤새 한산 시를 읽었다. 배가 고팠다. 빌려 온 책이라 노트에 뽑아가며 베껴 썼는데 지금도 그 노트에는 1965년 9월 10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후 김동화 선생님의 권유와 광우스님의 주선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가지기' 보다 '놓아버리기' 공부

집안 파산…휴학…공무원…동대불교학과 편입

현대불교

구독신청문의 737-0693

광고신청문의 737-0692

팩 스 737-0693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해를 맞이하여

이자임 결혼 연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결혼예정자들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자세와 기다림의 미덕이 필수 요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남의 첫 느낌과 예감이 좋다면 가장 이상적인 훌륭한 궁합이 아닐까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진실한 자세로 서로의 취향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섬세한 감각과 도창적 감지를 개척한 교감이 어우러진 청춘남녀의 행복한 결혼의 쌍을 이루기 위하여 새해에도 일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봉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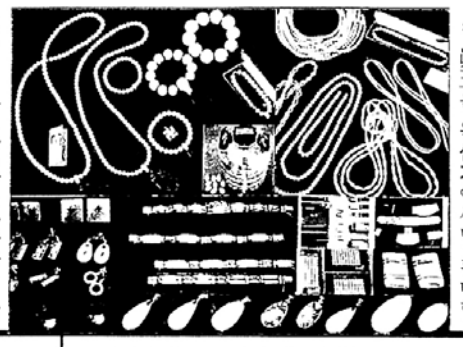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들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 심장질환자 82% 비염합병 90% 어지러움증 90% 부동 85% 고혈압 77% 관절염 67%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들 대상으로, 춘천옥산가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혈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5. 2. 17)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한겨레신문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관념은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레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옥 보 호 소장

장묘시설 및 임종 병원 시찰단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납골을 중심으로 하는 교계 장례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장례예식 봉사단을 발대하여 활동 중인 바, 관련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시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본 장묘업계 시찰 단원을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불교계 납골, 장례식장, 납골탑, 묘원을 설치 운영하시는 스님, 신도 (또는 설치 예정자) 25명
방문시찰서	동경, 오사카, 히로시마 소재 시설. (增上寺, 東京靈園, 靑山葬儀所 및 靈園, 히로시마 비하라 병원 등)
방문시찰기간	2월 10일 (토) ~ 14일 (4박 5일)
신청마감	1월 27일 (토)까지
방문시찰경비	참가자 부담
신청접수 및 문의처	사회복지재단 사무국 (02) 723-5101~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2〉

勸參禪文 (권참선문)

夫解須眞解 還他明眼宗師
부해수원해 환타명안종사
修必圓修 分付叢林道伴
수필원수 분부총림도반
初心薄福 不善親依 見解偏枯 修行顚倒
초심박복 불선친의 견해편고 수행뢰타
或高推聖境 孤負己靈 寧知德相神通
혹고추성경 고부기령 령지덕상신통

대저 앎이 모름지기 원만한 깨달음이고자 하면 저 눈 밝은 스승에 귀의할 것이요.

닦음이 반드시 원만수행이 되려면 총림의 도반을 잘 따라야 할 것이다.

초심이 돈독치 못해 좋은 벗에 의지하지 못하고 견해가 치우쳐 메마르며 수행은 게을러서

혹 성인의 경계를 올려다보며 미루어 짐작하여 저가 본래부터 신령함을 저버리나니 어찌 만덕진상을 알겠는가.

不信凡夫悟道 或自恃天眞 撥無因果
불신범부오도 혹자시천진 발무인과
但向胸襟流出 不依地位修行
단향흉금유출 불의지위수행

身遊市井之間 心染喧囂之態
신유시정지간 심염여염지태
所以 山野常僧 未免農夫之消
소이 산야상승 미면농부지초
城隍釋子 反爲儒士之羞 此 懶惰之罪也
성황석자 반위유사지수 차 뢰타지죄야

혹자는 혼탁한 언행으로 계율을 깨뜨리고 만면에 속세 풍진을 뒤집어 썼으니

비구다운 계행이 전무하고 팔만사천 번뇌를 여읠 수행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

또 혹자는 세간 사람들 일을 열심히 뒤좇고 분도들끼리 패거리를 이루어

몸은 저자거리에 섞여 노닐고 마음은 여염(세속 마을)의 작태에 물이 들어 있다.

그럼으로써 산야의 스님들은 농부들의 꾸짖음을 면키 어렵고

도시의 스님들은 도리허 유생들에 수치를 사게 되나니 이것은 게으름의 죄이다.

何不再離煩惱之家 重割塵勞之網
하부재리번뇌지가 중할진로지망

"실참수행않는 선객 화두에 매이고 지혜 거칠면 근본도리 못통하네"

所以 鹿解法師 不通教跟
소이 추해법사 불통교안
虛頭禪客 不貴行門 此 偏枯之罪也
허두선객 불귀행문 차 편고지죄야

범부는 깨달음을 믿지 않으니 혹 제 스스로 본래불이라 하여 인과란 없노라 하고

다만 욕금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끌리어서는 차례로 닦아서 과위에 오르는 수행을 외면한다.

그러므로 지혜가 거칠은 (마음도리의 미세한 경지를 모르는) 법사는 가르침의 근본도리에 통하지 못하며

헛되이 화두에만 매달리는 선객은 실참수행을 귀히 여기지 않나니 이는 수행이 치우치고 지혜가 메마른 죄이니라.

或則禪身破碎 滿面風埃
혹즉흔신파쇄 만면풍애
三千細行 全無 八萬威儀 總缺
삼천세행 전무 팔만위의 총결
或則馳踏人事 紺理門徒
혹즉추배인사 즙리분도

飮清風而訪道流 探微言而尋知己
음청풍이방도류 탐미언이심지기
澄神祖域 息意宗乘
징신조역 식의종승
靜室虛堂 斂衽衣而宴坐
정실허당 렴선의이연좌
青山綠水 携錫杖以經行
청산녹수 휴석장이경해

(그대들은) 어찌 다시금 번뇌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어찌 티끌 세간의 그물을 거듭 베이지 않는가.

어찌 청풍을 마시고, 도의 무리를 찾고, 미묘한 가르침을 탐구하며, 지기를 찾지않는가.

어찌 정신을 조사자리에 맑히고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 의식을 쉬려 하지 않는가.

어찌 고요하고 한적한 방에 들어 의관을 가다듬고 편히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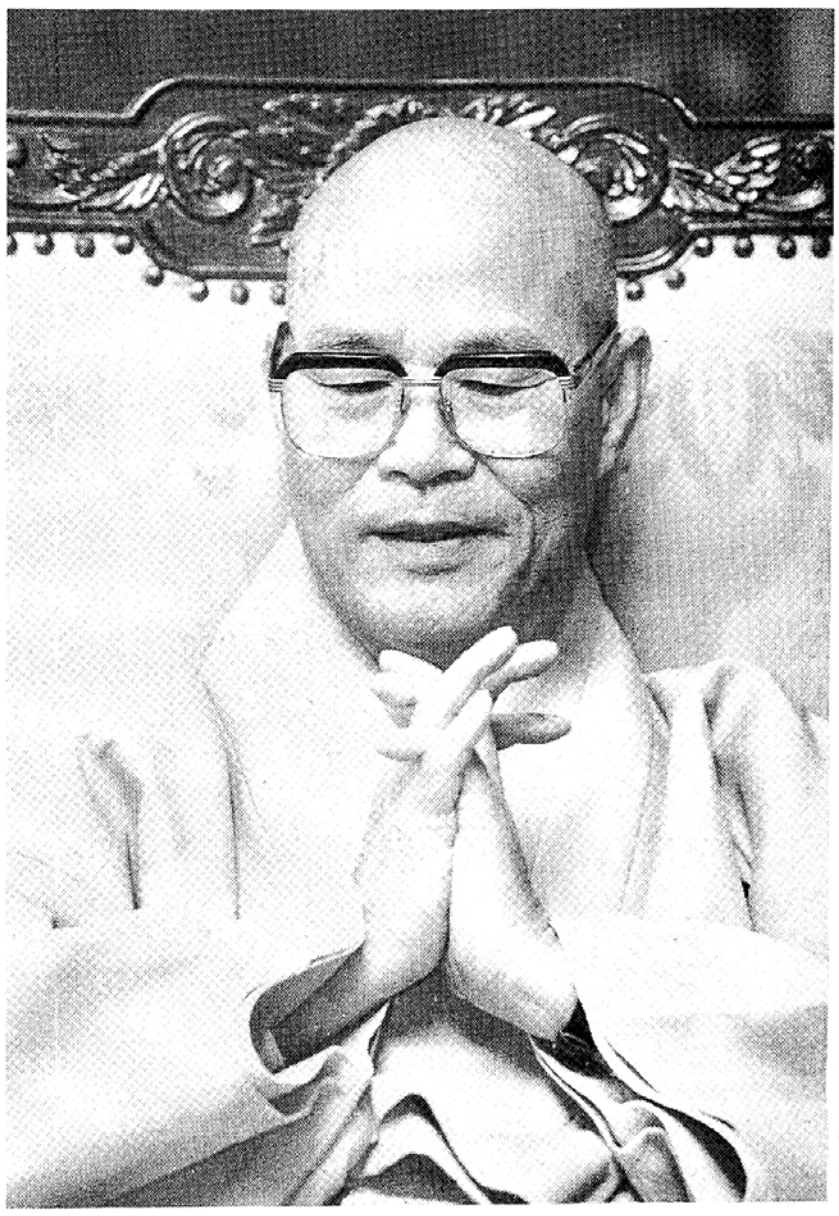
청산녹수에 석장 끌며 경행치 않는 것이냐?

龍眼

★ 지상법석

사물의 본성 제대로 파악

녹원스님 〈직지사 주지〉



악력
- 1941년 이탄용 화상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19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방한암 대종사로부터 비구계 수지
-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 1984년 조계종 총무원장
- 1992년 일본 大正대학 명예 문학박사
- 현재 동국학원 이사장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종교와 종파가 생겨났고 그들이 주창하는 교리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종교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믿는 종교' 또는 '믿음의 종교' 입니다. 어느 면에서 무엇인가 믿게 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불안한 생각들이 누그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근본적으로 깨닫는 종교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깨닫고 객관적으로는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2천6백여년 전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나무 아래에서 싯달다 태자가 마야부인의 우협(右脇)으로 태어났습니다. 탄생하여 땅에 발을 딛자마자 사방으로 7보를 걸으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사자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차원을 초월한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오직 하늘과 땅을 의지해서 만물이 지속적으로 생장케 하는 생명체가 존귀한 것이며, 만물에게 큰 이로움을 주는 하나 밖에 없는 생명체가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더라도 이 생명체 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체가 만물을 만들어

"비판없는 서구지향 태도 올바른 가치관 없기때문 수행통해 부동경지 이르면 실천도 수용도 흔들림없어"

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조화옹(神)이 있다고 긍정하거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 하려는 것인데 그런 종교를 믿음으로써 공포와 전율과 증오를 갖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 때문에 전쟁과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종교 때문에 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꽃피게 되었고 사찰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하는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불교문화를 부정하고 심층적인 비판없이 서양의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서양문화는 과학일변도인데 그러다 보니 지구는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들은 가장 고도의 문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서양의 과학과 불교적인 정신문화를 조화시켜 흔들리지 않는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일본제품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와 과학을 조화시켜 지도적 위치에서 흔들림없이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비판없는 서구지향적 태도는 기성세대 교육자들의 주체성없는 문화양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올바로 실천할 것인데, 실천이 바르게 안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 역사관, 문화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데는 불교의 선(禪)이 아주 유용합니다. 선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不動之心)을 갖는 수행입니다. 즉 마음을 작용시키되 부동의 경지에서 작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겁생에 걸쳐 6근(眼耳鼻舌身意)을 가지고 6진(色·聲·香·味·觸·法)을 대할 때 마음이 대상에 빼앗겨 왔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思業)과 행동(思己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그림자로 얽혀진 육체적 생명관을 가지고 18界(6根, 6塵, 6識)의 놀음을 반복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천지만물은 제각기 생명의 본질인 불성(佛性)자성(自性) 법성(法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만물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작용하게 합니다. 이 생명체는 천지 우주간에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살고 있는 기운(活氣)인 것입니다. 이 하나인 생명체에서 중생은 각각 다른 생각과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업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체는 반야심경에서 설하듯이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이지만 여기에서 온갖 세계가 건립되니 생명체가 바로 조화옹인 것입니다. 가상으로 형성된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유통업자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 · 당뇨 ·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상법석

순리대로 살면 '정각의 삶'

"우리의 생명체는 무안이비설신의 가상의 이몸에서 생명본질 찾을 수 없어"

이 몸에서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념(無念)과 무작(無作)으로 선을 실천하면 망상이 다하고 작위(作爲)가 끊어진 자리에서 생명의 본질이 하나로 귀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서로 장애가 되어 다투던 망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나의 집이 되고, 모든 중생이 나와 동일한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안심입명"을 갖는 참 자기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념, 무작으로 본분자리와 합하게 되어야 갈등과 증오가 사라지고 자와 타의 대립이 끊어져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열반이 실현되어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원리에 미(迷)했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허공의 모든 요소가 지니고 있는 성품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정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생명과학(宇宙生命科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원음(圓音)입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만 하여도 우주 전체에 사무치는 정각이며 원각의 깨침입니다. 중생은 망상(妄想)때문에 망견(妄見)에 집착하여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도 서로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하면 맥을 못추는 것, 이것을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예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예쁜가를 고양이에게 물어 보십시요. 장미꽃을 강아지한테 주어 보십시오. 무엇을 알겠습니까?

정각은 순리(順理)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순리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병을 고쳐야지요.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도 병을 고치기보다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부처님의 자리는 본래 무생사(無生死)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생명에 대해 확연하게 설파(說破)하셨는데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을 보고, 내생(來生)을 알고자 하면 현생(現生)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自業自得)·자작자수(自作自受)가 아닙니까? 다른 성인은 생사에 대해 분명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죽음이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삶을 모르는데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또 기독교의 천지창조(天地創造)설도 지성인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요. 나는 기독교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뜻은 생명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일러주고 있지요. 얼마 전 직지사에 내려가 있었는데 몇명의 수녀가 찾아와 교리에 대한 문답을 요청해 왔기에 응했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했지요. 그들도 천지창조설 같은 부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티끌만큼이나 많은 국토를 다 셀 수 있고(刹塵心念可數知)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있다며(大海中水可飮盡), 허공에 지나는 바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지혜와 재주가 있는 사람일지라도(虛空可量風可繫)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다 말할 수 는 없다(無能盡說佛功德)"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하신 본래 면목의 진리 자리는 언어와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 본체 자리는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땅에 출현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른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여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했습니다. 2천5백여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관자성(內觀自省)하여 증오하신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다 드러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깊고도 미묘하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그르칠 것이요 입을 닫아 말을 아니 하여도 그르칠 자리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으면서 또한 이를 꿰뚫고 있기도 합니다. 본래부터 청정하고 신령하기에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증득하셨기에 각자(覺者)가 되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바로 찾은 사람은 하루 하루를 광명 속에 사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생활이요 그렇지 못한이는 전도몽상의 일상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무사증오(無師證悟)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누구나 평등하게 이 자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샛별을 보시고 견성하신 순간 이미 진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진리이면서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면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와 내가 하나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인 경계입니다. 이는 하나속에 만법이 있고 만법 속에 하나가 녹아 들어 있는 경계입니다. 탁 트인 이 자리는 선악조차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향상되고 발전되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불교를 행하게 됩니다. 불교란 지혜를 개발하여 점점 생명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생불멸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 증감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 자체는 바로 물이듯이 인과 연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허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변치않는 생명의 본질을 관찰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생명의 본질을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覺者)에게는 번뇌가 바로 보리가 됩니다. 이 도리를 깨달아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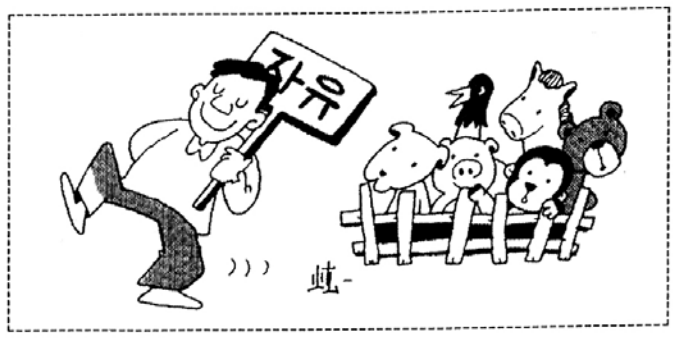
깨달음의 세계에선 너와나 우주와 내가 하나 중생은 육체 끄달려 6根 6塵 6識 놀음 반복

바로 우주의 생명체인 이 마음을 의지하여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받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중생이 생명 본성대로 살 수 없는 까닭은 사물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정각자(正覺者)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성을 파악한 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물의 생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이 얼면 딱딱한 얼음이 되고 다시 가열하면 수증기로 증발하지만 물의 본래 성질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체를 즉한 고체이며, 고체에 즉한 기체인 것이지요. 이같이 모양이야 상황에 따라 변해 가지만 물 그차제의 본질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로 보고 생활하면 이것이 정각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잔 하던 친구가 오늘 아침에 숨 trip 쉰다고 슬퍼할 것 없어요. 다른 곳에서 만나 한 잔 하면 되지요. 부처님은 성·주·괴·공(成·住·壞·空)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예를 들면 지구가 생겨나(成), 언제까지 머물다가(住), 붕괴되고(壞), 끝내는 없어진다(空)는 말씀은 경전에 꽤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만
> 파도 자체는 바로 물이듯이
> 인연따라 모양변하는 허상 쫓지말고
> 진리 깨달아 자유인 되십시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3

양 형 진

궁극의 자유

진화론이 대두된 이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상의 전 생물계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시각에서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여 본다면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현재 지구상에는 수백만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지만 그 모두가 같은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체가 동근이어서 그들 사이에 유사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인간과 다른 생물을 생물학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본다는 것은 자연계 내에서의 인간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세기 철학의 한 분파인 철학적 인간학의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철학과 종교의 근본 문제와 접목되는 것이라고 본다.

부처님 성도는 35억년 생명사의 전환점

환경·신체 제약벗어나 일체로부터 해탈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의 육체가 그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대단히 전문화내지는 특수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의 감각 기관은 특수 상황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고, 그들의 행동은 본능적으로 특수화되어 있다. 이러한 동물의 특성은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는 대단히 능률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러한 환경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적응의 한계에 쉽게 부딪힌다. 반면에 인간 육체의 기능이나 구조는 동물에 비해 원초적이고 비전문화되어 있어서 어느 환경 조건에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능이나 육체 구조에 의하여 음식이나 생존 반경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여러 환경에 두루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한 갖게 된다. (그 결과 오직 인간만이 지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살고 있다.)

전문화된 육체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면 인간은 이에 대응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고 능력이라는 것도 육체적 차이점의 다른 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갖는 세계관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대개의 동물은 자신의 특수화된 감각 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만을 인식하게 되어 폐쇄적인 세계 인식에 머무르게 되지만, 인간은 그에 비해 훨씬 개방적인 세계 인식을 갖게 된다. 성장에 있어서도 동물은 길어도 몇 년 안에 완전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고 성장이 완성되면 곧바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2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본능만으로 생활하지 않는 인간은 육체적 성장 이후에도 정신적 유산을 그 전 세대에게서 물려받고 또한 후대에 물려주는 작업을 한다.

이상의 철학적 인간학의 탐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구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사고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생물종이 지상에 태어나기까지 35억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원시 지구에 존재했던 무기물의 세계에서 유기물이 생겨나고,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를 거쳐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 생명체 중의 하나로서 자유라는 존재 의미를 지닌 인간이 생겨났던 것이 생명의 역사이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사의 궁극적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의 궁극이 무엇인가라는 말과 통한다. 환경이나 신체 구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대자유 그것은 해탈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아 35억년이라는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맹목적 삶의 의지의 집적인 무명업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 궁극의 자유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그 소식을 최초로 전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라는 사건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의식으로, 의식에서 불성의 자각으로 이어지는 35억년 생명사의 큰 전환점인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계옹산의 나무들 처럼 …

—단식·단수·묵언 수련회 안내—



◀ 그림 설명: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여 이 세상에 자비의 몸을 나투신 수지지장보살(사불옹)

죄업을 참회하고 나쁜 습관 변화시켜
보살의 길 닦으리라.
아침이슬, 우리인생 슬픔 없어지거라.

염불선 수련 도량 대원사에서는 숙세의 죄업을 소멸하고 공덕과 해탈의 씨앗을 심는 특별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본 수련은 십선계(十善戒)와 팔제계(八齊戒)를 수지하고 단식(斷食), 단수(斷水), 묵언(默言)을 수련하여 삼악도(三惡道)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조석예참과 관정기도로 지장보살님께 귀의하여 발심수행(發心修行)하고 성불제중(成佛濟衆)의 서원을 일으키는데 본 수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Tibet의 연화생대사가 전수한 기공 수련법 "향공(香功)"을 지도하니 관심있는 불자는 물론 교사불자 및 불교청소년 지도자들의 진지한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1차(2박 3일) 1월 19일 17시 ~ 1월 21일 14시까지
2차(2박 3일) 1월 26일 17시 ~ 1월 28일 14시까지
3차(2박 3일) 2월 9일 17시 ~ 2월 11일 14시까지

수련내용 조석예참, 육근참회, 관정기도, 염불 명상법, 자비관, 만트라 명상, 선체조, 향공(香功) 등

동참회비 2만원(교재비 포함)

수련지도 현장스님

준비물 세면도구 (시간엄수)

인원 선착순 30명 제한 (전화접수, 수련 3일전까지)

교통편 광주 고속 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 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

연락처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천봉산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53-1755
팩스 (0694) 53-0009

水子靈 천도를 위한 49재 봉행 안내

수자지장 보살을 봉안하고 낙태 유산아의 천도를 기도해 온 대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자령 천도를 위한 49재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공덕의 삶 닦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수자령 천도를 위한 기도 자료집을 우송해 드립니다.)

—일시 : 입재 : 1월 15일 초재 : 1월 22일 2재 : 1월 29일
3재 : 2월 5일 4재 : 2월 12일 5재 : 2월 19일
6재 : 2월 26일 회향 : 3월 4일 (정월 대보름) 10시

—기도비 : 3만원

—온라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기도 회향시에는 "재앙 소멸"과 "영가공양"을 위한 "호마(護摩)의식"이 봉행됩니다.

지장보궁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주지 釋 玄 藏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새로운 전생(轉生)

과연 불이와 합두의 기괴한 애욕, 아니 처절한 애욕은 그들이 기억이나 의식이하의 무의식으로 그리워 하다가 만나는 순간의 그 못박의 불덩어리로만 그치지 않았다.

누가 애욕에 끝이 없다하였는가. 적어도 그들 아귀계의 업장이 다 마쳐지는 때에 이르러 애욕은 차라리 그들의 마지막 잔치였다. 아니 그들이 아귀계에서 떠나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의 장엄한 전생(轉生)의



〈60〉

쓰임새 자유로움을 얻고
살 길을 헤앗은 뒤로
빛을 놓는 마음 빛깔 그윽하구나
(二理二義故
轉用得自由
好下生緣後
欣光心色深)

이 노래는 아무래도 불이 합두와 관련된 성 부스다.

불덩어리의 맨 위쪽은 수미산 산정이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바다위의 허공까지 올라가 있었다.

동쪽 승신주(勝身洲) 서쪽 구타니주(瞿陀尼洲) 북쪽 구로주(俱盧洲) 그리고 인간계가 이끌어가는 중생계인 남쪽 섬부주(贍部洲)에서 살고 있는 영적(靈的)인 중생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불덩어리 상반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미도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있으므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가 바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불덩어리를 보게되었을 때 그와 함께 그들도 서로 볼 수 있는 불덩어리에서 영적인 집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뽑은 시선들이 불덩어리의 허공에 모였을 때의 그 시선들의 만남이야말로 또하나의 경이로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세계에는 굳이 시인이 있을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의 운행이나 일 자체가 이미 시적인 황홀경을 극적으로 자아내기 때문이다.

고려의 시인 임춘이 정치적으로 불운한 삶을 살면서 한끼 밥도 얻어먹기 어려웠던 아귀계와 가까운 사실은 그대로 그 후신인 불이의 아귀계에서 더욱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는 합두라는 대상과의 일치로 된 애욕에 의해서 한편의 시를 온세상에 쓴 셈이었다. 시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시인이 있어야 할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이미 불이 합두가 이룬 그 애욕의 절정에서 불타오르는 그 엄청난 우주적 불덩어리의 사건이야말로 수미산의 여러 세계에까지 소문이 전해질 만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우주 속의 허공 어느 곳도 다치지 않고 오로지 불덩어리 자체만을 하나의 맹렬한 생명체처럼 솟아오르도록 불의 의지를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 불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가는 것을 온통 불태워버리고 말 터이지만 거기에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는 쪽에서 바라본다면 그 이상의 찬란한 아름다움의 장관(壯觀)은 없을지도 모른다.

세계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존재의 총체(總體)를 뜻하고 있다. 그것을 자세히 따지노라면 세(世)란 시간이고 계(界)란 공간이다. 우주의 우(宇)는 공간이고 주(宙)는 시간이다.

고대인도의 태양신 수우리아를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 있다.

"산들의 빛나는 표면, 미트라, 바루나, 아그니의 눈-태양-은 바야흐로 떠오르나니. 수우리아는 하늘 땅 허공계를 가득 채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의 영체(靈體)로써"

"수우리아는 젊은이가 처녀의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빛나는 여신 우샤스(曉紅)의 뒤를 쫓아 경건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 행복을 갖다주는 이음대를 만들 때"

"행복을 가져오는 수우리아의 황금빛 망아지는 갖가지 빛으로 빛나고 그 준족(駿足)으로하여금 환호로 맞이하여 공경하올 하늘의 등(背)에 오르나니. 그들은 하루 안에 천지를 내달리노라."

아마도 불이 합두의 불덩어리가 솟아오른 허공도 먼동틀 무렵의 어둠이었을 터이다. 그런 먼동트는 때의 극적인 불덩어리 기둥이란 사람이나 짐승 또는 귀신의 눈에는 황금빛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내달리



조선시대 선조때 임진 정유년간에 명나라 군대와 왜군을 피하여 산중으로 도망친 한 어머니가 10여일을 굶은 뒤 실성(失性)해서 안고 있던 아기가 중병이라로 보여 그 아기를 삶아먹은 참변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런 실성이 아닌 한 영원히 그 자신을 죽여 아이를 살리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다.

바로 이런 어머니의 지비가 아닌 어머니의 아이 먹기가 바로 아귀계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아귀계와 또 다른 종류의 아귀계로는 절해고도에서 사는 아귀도 있다.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고 개울도 물 한덩이도 없다. 그러므로 사바세계 조선 서해의 무욕도와 같은 섬일 수 없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생물이란 바로 아귀하나 뿐인 것이다.

이 아귀도는 한여름 더위의 1천배가 되는 뜨거움으로 끓어오른다. 이런 섬에서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어머니의 '아이 먹기'는 아귀계의 한 현상이다. 불이 합두가 無財 小財 多財아귀를 공부삼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음은 거의 기적이었다 그들은 애욕까지도 진리의 사건으로 발전시켜 아귀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있거니와 이들은 그나마 다른 아귀보다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배는 임신10개월 이상으로 큰데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입안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의 아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아귀도 있다.

대체로 아귀도 이처럼 구차하게나마 먹는 아귀가 있는 반면 무재(無財)아귀는 전혀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아귀이다. 억지로 먹어보았자 먹은 것이 바로 사나운 불길이 되어 아귀의 내장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소재(小財)아귀는 아주 작은 구토물 따위를 맛볼 수 있고 다재(多財)아귀만이 상대적으로 천상계의 음식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재아귀도 언제나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픈 고통이 따르는 것을 피할

구도자로서의 비장한 본분을 잃지않고 아귀계를 다 치루어낸 불이·합두는 이제 수미산에 성큼 다가가는…

승길 수 없는 죽전(祝典)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치 인간계에서 사람이 죽은 뒤 그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나 추도식을 베풀어 길이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불이와 합두는 아직 아귀계를 영영 떠나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하나의 불덩어리로 허공을 치솟아 올라갔으므로 이미 끝난은 아귀계를 벗어났으나 그 불덩어리의 밑부분은 여전히 아귀계에 속해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불이 하나가 된 찬란하기까지한 불덩어리의 길이는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이어줄 만큼 길었던 것이다.

어디선가 다음과 같은 그윽하기까지한 노래가 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돌아다보아도 정작 노래하는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지혜와 어리석음이 관가름난다. 노래는 노래하는 주인공도 없이 징넝 노래였다.

두 이치 두 뜻을 거두니

는 광경이어서 '리그베다'가 묘사하는 '황금태아(胚胎)의 노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불덩어리의 상반신이 누리는 영광과는 달리 그 하반신의 뿌리는 아직 아귀계를 이륙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불이 합두의 업장이 아귀업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귀계는 수많은 아귀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는 특히 합두의 어떤 아귀업 때문인지 색다른 세계에 그 불덩어리 밑부분이 닿아있어서 산 목숨이 타는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다.

그곳은 젊은 여자 아귀가 매일 낮과 밤 2회에 걸쳐 다섯명씩의 아기를 낳는다. 그 아기들을 낳자마자 아기를 낳은 어미가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배고파라!"를 연발하며 빨리 다음 아기를 낳고 싶다고 악을 쓰는 것이었다.

어느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있을 것인가. 어머니란 그가 낳은 아이에 대한 죽음인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써 그가 낳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서 가장 대승의 궁극에 있는 것이 자비(慈悲)일진대 이 자(慈)는 아기가 젖을 먹고 노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기쁨과 같은 사랑이고 비(悲)는 아기가 병들었을 때 괴로워하며 백방으로 아기의 병을 낫게하려는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으로 된 사랑인 것이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모성 귀의도 냉혹하게 따지노라면 어머니의 젖, 어머니의 희생으로 된 보호 때문이라는 현실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어머니는 이런 현실 따위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룩한 자아의 발전으로서의 본능이 아닐 수 없다.

것이다.

기껏해야 이른 아침 부지런을 떨어서 이슬 몇방울을 받아먹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 아귀도의 고통에 떨어지기 전의 세상에서 불상한 등짐장수나 행상인들 속에 물품을 사취한 인간이 이런 업보를 받게 되어 아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어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야 할 시원한 나무그늘을 없애거나 짐승들이 살 숲을 없앤 인간도 바로 아귀계에 떨어진다.

이 나무 없앤 아귀는 나무 줄기 속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그 안에 갇혀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 자유없는 벌을 받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똥과 오줌 콧물 고름 피 그리고 더러운 수채구멍의 물만 먹는 아귀도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족(自足)과 감사를 모르는 업장이 이런 다재아귀로 태어나게 만들거니와 불이와 합두는 이 무재 소재 다재의 아귀계를 다 치루는 동안을 그들의 공부로 삼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노릇이었다.

아마도 이같은 구도자로서의 비장한 본분을 잃지 않은데서 그들의 애욕까지도 진리에의 한 사건으로 발전함으로써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미산에 성큼 다가가는 불덩어리의 애욕을 성취한 것인지 모른다.

이제 불이 합두는 아귀계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림·조향숙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큰병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혈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락을 북돋워주는 경락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활성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즉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연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연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신속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친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칠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폐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정년기장애, 기비, 주근깨, 여드름, 탈금삼,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혼자서 편한 시간에 혼자서 3곳에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곳에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가 국법에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기 보급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비교한 방법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한약재와 곡물과 생면주사 등 3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둥 양 방향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연기스와 엄선된 약초성분이 합쳐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혈자리 경락으로 새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열중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맺히는 쑥연기스는 항균, 항균작용을 하는 인디제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약약을 얻을 수 있다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침질환약쑥 약 2개 월분 포함)
2) 쑥뜸도구입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십가족이 사용

■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여년간 불교건강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오랍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치랑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시장에서 요청시 수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비로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달아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깜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쉽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폭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아간 : (0342) 706-3060

"부처님 법따라 자비·행복 추구"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 발표
러시아·인도·프랑스 불교 복지 환경운동 실태

참관기고



김 동 혼
〈경불련 운영위원장〉

구랍 24일부터 28일까지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臺北) 근교에 있는 보련사(寶蓮寺)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제2차 불교도대회'가 열렸다. 한국을 비롯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말레이지아, 네팔, 러시아, 스리랑카, 타일랜드, 타이완, 미국, 베트남, 인도 등 16개국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각 국의 불교도가 서로 연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류의 최대 현안인 자연 생태위기, 전쟁과 빈곤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참가자는 스님, 사회활동가, 불교학자 등이었고 각 나라별로 불교현황과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마을, 불교환경교육원, 불교자원봉사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프랑크 테데스코 교수(세종대)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동혼 경불련운영위원장을 통해 대회에서 발표된 러시아 인도 프랑스의 불교계 복지·환경운동 실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구랍 25일, 대회 기간에 맞춰 대만 보련사에서 새로 지은 불사리탑 낙성식이 있었다. 네팔에서 고승중의 한 분인 초기 트린첸 린포체(Chogey Trinchen Rinpoche)가 승려들을 이끌고 참석하여 전통 티벳의식으로 행사를 주관했다.

티벳에서 태어난 그는 7세 때 출가하여 많은 공부와 수행을 한 14대 달라이 라마의 세스승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원형 사리탑 안 불단 정면 유리관에는 오색 찬란한 부처님 진신사리, 가섭존자 사리, 금강사리, 나한 사리 등이 봉안돼 참배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불자들로 새벽부터 경내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불자 모두에게 3과씩 사리를 나눠줘 사리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 러시아에는 약 3백년 전 티벳과 몽고로부터 불교가 전래됐고, 1917년 공산혁명 전에는 70여 개의 사원과 4만명의 스님이 있었다. 1930년대 초에 모든 절은 파괴되고 스님들은 죽거나 피신했으며, 1946년에야 두 개 사원이 다시 문을 열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했다.

지난 5년간 불교가 부흥하여 지금은 50여개의 사원과 1백만명의 불자가 생겼고 53명의 스님이 해외유학 중이며 150여명이 국내에서 불교교육을 받고 있다.

불자가 많은 우란 우드(Ulan-Ude)지역에서는 병원(병상 70개, 의사 5명)을 운영하고 어린이 교육에도 관여한다. 특히 바이칼 호수(Lake Baikal)의 생태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호수는 세계 맑은 물의 20%를 저장하고 있으며, 호수 남쪽 지역에 위치한 16만5천헥타에 이르는 생물보존권에는 7백87종의 식물과 3백 종류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보호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들은 생태보호 문제에 불교가 정신적 측면과 행동덕목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 도 불교의 기원지인 인도는 힌두교와 카스트 관습 때문에 지난 1천년간 불교의 불모지였다.

56년 10월 위대한 인도 민중의 지도자인 암베드카르박사(Bhimrao Ambedkar)에 의해 50만명의 불가촉 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비로소 불교가 고향에 되돌아왔고 지금은 불자가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독립 후 초대 법무장관이 된 암베드카르 박사는 미신과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오랜 관습에 찌든 인도사회를 변화시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의 인도주의와 개혁정신에 감화된 서양의 불자들이 위대한 승단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모임(TBMSG)을 만들었다.

이 기구는 불교를 가르치는 다르마 센터(Dharma Center)와 사회복지와 교육을 위한 바후쟌 히타이(BAHUTAN HITAY)를 설립해 운영한다. 전국 20여 개의 다르마 센터에서는 명상, 범인류적인 사랑과 친절, 기초교리를 가르친다.

'더 많은 사람의 복지를 위해'라는 모토를 가진 히타이는 교육기회를 상실한 빈민가의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하는 49개의 유치원과 소녀들을 위한 비정규교육기관(예를들어 넘마 쫍기를 하는 소녀들), 어린이 도서관, 탁아소, 여성 자립을 위한 봉제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사회개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를 대표한 베트남 출신의 티치후엔 비(Thich Huyen-Vi) 스님은 석가모니는 모든 인류의 행복과 선을 위해 태어났으며, 비폭력과 자비, 범인류적인 사랑, 불법의 가르침을 통한 인성의 변화가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성이 세계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대규모의 개발과 정복은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유·선한 삶·자비심을 수행하고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와 국제경제질서를 개혁한다. 참가자와 각국 불교지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하여 세계 만방에 불법을 포교할 것과 인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원한다."



◇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에는 16개국 스님·재가불자가 참여 "우리는 부처님 법따라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러 불자 1백만명…바이칼호 생태계 보존 앞장
인 사회교육센터 히타이운영 '더 나은 삶' 모색
프 개발·정복등 지양…생명존중 인성회복 중시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성념의 장 *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이 향 원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들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새로나온 책...

▲마음의 비밀 2(성운스님 법어·이인옥 역)=불광산에서 대만 불교를 이끌고 있는 성운스님의 법어집을 우리말로 옮겼다. 스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신심과 기쁨, 편리함과 봉사를 줄것' 을 강조한다. 〈토방, 6천원〉



▲오세동자의 오도(백운스님 지음)=불교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큰스님들의 이야기를 소설화 했다.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살았던 고승들의 발자취를 설화형식으로 흥미있게 재구성했다. 〈불광, 6천원〉



▲전등록 2(문재현 옮김)=송나라 진종경덕 원년에 오나라의 사문 도언(道彦)이 석가이래 조사의 법맥을 체계화하고 법어를 기록한 〈경덕전등록〉을 번역했다. 〈바로보인, 1만8천원〉



▲두손 모은 곳에 자비가(불교문화진흥회 엮음)=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절에서의 예절, 기초교리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교 입문서. 〈관음, 6천원〉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까(전이창 지음)=죽음은 내가 떠나온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은 삶의 막다른 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가천도의 중요성을 에세이식으로 서술했다. 〈솝리, 7천원〉

청소년 불서포교 '거북 걸음'

작년 불과 15종 출간…상업성 고려 외면

포교원 '추천제' 검토…올 만화출판 활기띨 듯

불교 경전 속에는 아동에게 좋은 정서와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수많은 재료가 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각이나 본생담, 신비하고 재미있는 불교설화 등 불교 내의 소재만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실제 이런 내용을 어린이·청소년들에 맞게 불서로 출판된 도서는 크게 미비해 청소년 포교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책방 여시아문과 불서총관 운주사의 도서목록을 분석한 결과(1월6일 현재), 교계출판사에서 펴낸 어린이·청소년불서(이하 아동불서)는 260여종이며, 이중 순수 불서는 130여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해 출간된 아동불서는 15종 18권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한출판협회가 지난 9일 발표한 95년 출판통계상의 아동부문 신간발행 종수 4,163종의 0.36%에 불과한 수치다.

내용별로 보면, 교리서는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좋은인연) 〈어린이불교〉(동국역경사업진흥회) 〈청소년 불교수련의 길잡이〉(정토) 등 4종이며, 동화책은 〈부처님의 땅 3·4〉(불지사) 〈코끼리의 눈물〉(밀알) 〈지혜로운 바람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가리온) 등 5종이다. 또 전기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밀알) 〈어린이를 담은 큰스님 상·하〉(우리출판사) 등 2종이며, 만화책은 〈만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사사연) 〈만화 화엄경 5·6〉(불교만화사) 등 3종, 동요는 〈피아노 찬불동요〉(현대음악출판사) 1종 등이다.

1월6일 현재까지 나온 아동불서를 출판사별로 살펴 보면, 룸비니불교동화 시리즈를 펴낸 고려원미디어가 14종으로 가장 많은 책을 펴냈다. 불광출판부가 10종, 햇빛출판사가 10종, 우리출판사가 9종, 불지사가 7종, 불교만화사·관음출판사가 6종, 창작과비평사·교학사가 5종씩을 각각 출판했다.

'잘해야 본전'이란 아동불서 출판시장의 현황을 볼 때 올해도 그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하지만 최악의 출판시장을 경험한 교계출판사들은 비디오 세대를 위한 불교만화 출판을 중심으로 포교용 아동불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출판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춰 지눌·경허·성철스님 등의 전기를 소설화한 청소년불서 〈고승의 발자취〉 10권을 1차로 펴낼 예정이다. 또 불교만화사는 3월경 〈만화 화엄경〉 7~10권을 발행, 화엄경시리즈를 완간하고 대원정사는 종립고등학교 교재를 펴낼 예정이다. 고려원미디어는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5권을 골발간하며, 밀알출판사도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시리즈 4~6권인 〈화엄경〉 〈아함경〉 〈유마경〉을 발간한다. 불지사는 3월경 만화 〈화이팅 손오공〉을 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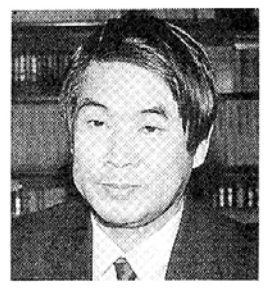
한편 금년을 불교청소년 해로 지정한 조계종 포교원은 2월초까지 〈청소년법요집〉 발간을 마무리지으면서 교계출판사의 의견을 수렴, '불서 추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포용·실천 두드러진 화엄사상에 매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김두진 교수



"독특한 포용성과 강한 실천성을 지닌 의상의 화엄사상에 매료되었지요."

제36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된 국민대 김두진(50·국사학과)교수는 "불교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종사상과 화엄·유식 사상이 조화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됐다"고 말했다.

수상작 〈의상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민음사)은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의 화엄사상과 신라중대의 전제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저서. 의상의 생애, 화엄사상의 논리구조와 역사적 의의 등 전체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라 화엄사상을 고대의 사회사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균여화엄사상연구〉등의 저서와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해 온 그는 현재 불교신앙과 토착신앙과의 융합현상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

95년 종교서적 중 불서 24%차지

지난 95년 새로나온 불서는 모두 443종으로 지난해 신간 종교서적(1834종)의 24.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책방 여시아문 불서신간목록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의 '95년 출판통계'상의 수치를 비교한 것.

한편 '95년 출판통계'에 따르면 발행종수는 2만7407종으로 94년(29,564종)에 비해 7.2%가 줄었으며, 부수도 1억4418만3607부가 발행되어 94년보다 5.3% 감소했다. 이중 종교서적 발행은 94년 1941종에서 5.5% 감소했다.

'문화대국으로…' 펴내

문체부의 중견관료들이 우리나라 문화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집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을 지식산업사에서 펴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나	서 암	등 지
3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4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신통	혜 윤	청 마
7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8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9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 중 표	대원정사
10	평화로움	틱 낙 한	대 원 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보살사상 경구선집 — 월주스님 편역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등 보살행의 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등 8편의 대승경전 중 보살사상이 담긴 경구들을 가려뽑아 해설을 덧붙인 〈보살사상 경구선집〉을 펴냈다.

"보살행이란 진리를 현실속에서 구현시키는 불자의 임무이자 의무로서 중도적 연기관에 입각한 이타행이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강조해 온 월주스님은 지난 89년 경실련 공동대표를 필두로 불교인권위, 공추불, 시민단체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의 사회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살행을 고무하는 첫 시도'란 스님의 설명처럼 이 책은 〈6백부 반야경〉 중 공관사상에 기초한 6바라밀의 보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보살행이 일승행 즉, 성불행에 귀일됨을 표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운주사, 1만5천원〉

보살수행 가르침 한권에 결집

불교 길라잡이 — 곽철환 지음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에게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이해 엮은 〈불교 길라잡이〉(곽철환 지음)가 나왔다.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설을 피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전과 어록, 고승들의 저술과 비문을 인용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초심자를 위해 많은 도표와 사진을 실었다.

초심자위한 교리·의식등 해설

제1장 '인류의 벌 석가모니'에서는 붓다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기, 사성제 등의 기본교리를 서술했다. 제2장 '꺼지지 않는 등불'에서는 초기교단과 경전의 성립, 대승불교의 출현, 대장경의 성립을 서술했다. 제3장 대승의 세계, 제4장 선, 제5장 불교의 세계관, 제6장 간추린 한국불교사, 제7장 불교의식, 제8장 사찰을 찾아서, 제9장 불교에 대한 99가지 문답과, 부록 '불전 다이제스트'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 1만8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승찬대사 '신심명'

신심명(信心銘)은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僧璨)대사가 지은 글이다. 내용은 불법의 근본사상인 중도(中道)를 4언절구(四言絶句) 146구 584자(字)로 읊은 짧은 운문(韻文)이다. 선(禪)에 관한 중국에서 성립된 문헌으로는 초조 달마(達磨)의 남긴 글이 몇편 전하나, 대부분은 위작(僞作)이라고 하며, 2조 혜가(慧可·487~593)의 글은 한편도 없음으로, 3조 승찬(?~606)의 '신심명'은 중국 선승이 찬술한 최초의 글이다. 달마가 전한 대승선(大乘禪)의 오묘한 선리(禪理)가 '신심명'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니 실로 중국 선종사상 획기적인 글이다.

신심명은 가장 짧은 글이나 그 의의에 있어서는 부처님 일대의 설법을 위시하여, 8만4천법문, 5천7백여권의 경전및 조사(祖師)들에 의하여 검토된 1,700공안(公案)도 다 이 146구에 불과한 짧은 글속에 남김없이 설파되었으니, 실로 '신심명'은 불법의 요약이요, 대승선·조사선의 원천이요 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큰 사찰이나 선원에서 예불때에 독송하는 좌우명(座右銘)이 되고있다. 내가 이 같이 소중한 '신심명'을 평생토록 수지 독송하게 된것은 30여년전 부터이다. 1960년경에 조계종 종정으로 재차 추대된 하동산(河東山)큰스님께서 조계사에 주석하셨을 때이다. 번뇌를 씻기 위하여 찾아 뵙고 청법하니, 스님께서는 즉석에서 '신심명'의 첫구인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8자를 화두로 써주셨다. 그후 여러해 지난 후 우연한 기회에 신심명 전문(全文)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찌나 기뻤든지 146구 584자로 된 전문을 깡그리 외운것이다. 그후 오늘날까지 항상 낭송하면서, 불법의 오묘한 중도사상을 참구하고 있다. 동산큰스님의 이처럼 크신 법은(法恩)을 갚을 길이 없어 조석예불을 모실때에 명복을 빌 뿐이다. 그러면 '신심명'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요지는 첫머리에 든 '지도무난 유혐간택' 1구에 다 설파하였다고 할수 있다. 즉 본심 자리(至道)를 깨치는 일은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간택을 싫어한다. 즉 본래심은 이지불이(理智不二)의 분별없는 반야지(般若智)인데 자타의 차별상에 집착하여 득실 시비를 가리게 되고, 밉다 곱다는 증애(憎愛)하는 망심을 내어서 본심을 잃게 되니,



박관섭
(건국대 명예교수)

中道 4언절구로 읊은 선종서
경전·공안 핵심내용 빠짐없어

오직 증애심만 없으면 청정한 본래 마음이 환하게 현전(現前)한다고 설파했다. 이런 요지를 이모 저모로 40번이나 거듭하면서 간절하게 서술한 우아하고 운치있는 글이다. 승찬대사는 일체의 차별이 되는 두변(二邊)은 상호 의존의 이지불이(理智不二)에 즉(卽)한 하나로 통일된 원융무애한 공(空)이기 때문에, 양단(兩端)이 동일함으로, 삼라만상을 모두 다 포함하였다고 갈파하였다. 그러므로 일체의 두변에 집착하지 말라, 분별심 때문에 생긴 망견(妄見)은 꿈속에 꼭두각시나 허공꽃을 파악하려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하였다. 진여 법계에는 〈자〉도 〈타〉도 없다고 하였다.

요컨대 '이것'에도 '저것'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불이(不二)에 즉한 중도의 이치를 알게 되면 해탈한 대자유인이 된다고 설파한 것이다.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일본 헌병의 존경과 참회의 생애

日本에서는 佐木隆三(사키류조)가 쓴 "伊藤博文과 安重根", "犢野의 烈士 安重根" 등 10여 종의 서적이 발간되었으며 安義士의 생애와 사상(東洋平和論)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자매결연으로 인연을 맺은 日本 仙台(SENDAI)소재 大林寺 주지 齊藤(사이또 다이켄) 스님의 권유로 八公山 藥師庵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見利思義見危授命

이로움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25-0803, 藥師庵 一如

이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부적이란
신통등의 불가능과 타인들이 고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공을 벗지하는 보이는 세계의 신통력은 부적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속시켜 통솔하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비결부
▲팔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참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침묵의 소리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값 7,000원

침묵의 소리 신화 02)444 3575 5310 팩스 02 3436 1064 종로서적 신화 02)732 5381 팩스 02)732 6202

●참은 남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사리서려 사은제 저 허공에 데이리치 울려 퍼지리라

▶용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도서!!
72년 ○월 ○일
녹슬은 철조망에 비가 내린다.
녹슬은 철조망에 참새가 앉았다 날아간다.
—본문 중에서—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원납용사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담겨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얘기한 것이다.

호 반출판사
☎ 02)3673-0224

※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탈종공고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152호
■사찰명 : 원효사
■주 지 : 한영호 (학봉)

상기 사찰 및 주지는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하오며, 그 증거로 탈종서를 공고합니다.

1996. 1.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정정공고

본지 60호 신년축하광고 중 「부산불교실업인회」 광고에서 부회장 최참을 최찰로 바로 잡고 사무차장 이해윤이 누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성별 : 남
■연령 : 만 18세 ~ 25세
(군필 또는 면제자)
■학력 : 제한 없음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포교 및 기도의 원력을 가지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종무행정을 담당할 여법우룰 모집합니다.
• 문의
(051) 625-2253
625-2254

불교교육회관
부산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교계 첫 전문전시장

불일미술관 개관

법련사 신축 영산대법전에…문화강좌도

쉴새없이 크고 작은 전시가 열리는 인사동과 이어져 있는 사간동은 세종문화회관미술관 현대갤러리 중앙박물관 가인화랑 등 유명 전시관이 즐비한 예술의 거리, 화랑의 거리다. 특히 경복궁 박물관·공예관과 출판문화회관 전시실, 프랑스 문화원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도심 포교당 법련사 영산대법전이 지난 8일 거원하며 아울러 불일미술관 개관식을 함께 가져 교계뿐 아니라 일반 미술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일미술관'이 개관됨에 따라 인사동과 사간동에 있는 전용미술관은 총 80개.

불일미술관은 부드러운 기와지붕선과 화려한 단청의 전통 불교건축미를 보여주는 세련된 도심 포교당 영산대법전안에 소재해 외양부터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전문 큐레이터까지 둘 불일미술관은 60여평 면적으로 전통 및 현대 불교미술 작품은 물론 일반 미술작품까지도 전시할 예정이며 옆에 전통다원 '연다원'이 함께 있어 문화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개관기념으로 주지 현호스님의 인도성지순례 사진전을 열고있는 불일미술관은 앞으로 근대고승유묵전, 송광사 유물 사진전, 유명 도예가 도예전 등을 기획하고 있다.

불일미술관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시와 더불어 문화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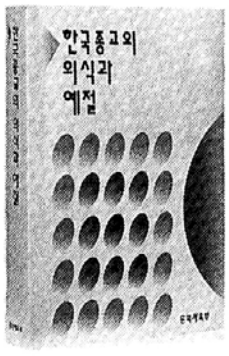
불자들과 주위 직장인들,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는 △불교교리 △불교문화재 △참선 △도자기 △불화그리기 등으로,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단계를 밟게 해 본격적으로 불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과 동시에 문화를 통한 불교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불일문화관장을 맡은 신영훈씨(문화재 전문위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빼어난 여러 불교예술작품을 일반에 소개하겠다"며 "특히 문화강좌에는 각 분야의 뛰어난 강사를 초청해 우리 전통문화의 향기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출에 역점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지난 8일 불일미술관 개관식후 월탄스님, 현호스님, 최완수씨(왼쪽부터) 등이 인도성지 순례 사진전을 돌아보고 있다.



'한국종교의식과 예절' 발간

다종교사회 이해·화합 도모

문체부, 23개 종교의례 한자리에

역사 교리등 비교 상호 영향 밝혀

불교를 비롯한 23개 종교의 의례의식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책자가 발간됐다.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이 책자는 제1부 '종교생활과 종교의례'에서 다종교 사회에서의 건전한 신앙생활, 의례의 일반적인 의미와 특성, 한국종교의 례의 전개와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제2부 '각 종교별 의식과 예절'에서 각 종교의 역사와 교리, 일상생활의 기본예절을 소개해 놓고 있으며 의례를 기능별로 분류 수록했다.

또 3부에서는 '한국종교의례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종교문화전통 계승 발전문제등 종교의례의 중요성을 살피고 있다.

불교의 경우 전래과정, 신앙과 교리, 사찰내에서의 일상종교 예절, 의례와 의식, 태고종등 각 단과별 의례의 특징등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사찰내에서의 예절과 법당에서의 예절, 합장과 반배, 오체투지등을 포함한 인사방법등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까지 곁들여 쉽게 설명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삼보(三寶)와 부처님의 의미, 부처님의 칭호와 불교의 제 신앙등의 교리는 물론 목어, 법고등 사물(四物)에 대한 설명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제3부 '한국종교의례의 전망과 과제'에서 이 책자는 불교는 본래 외래종교였으나 고대 제천의례에서 비롯한 고유신앙의 의례문화들을 계승하고 나름대로 의례를 자기 종교적 전통내에서 특성화시켜온 전통종교로서 불교의 재공양과 염불, 좌선, 안거등은 이미 생활관습과 한국종교의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책자 발간은 한국의 종교 전체적 규명과 함께 종교와 문화의 상호영향 등을 밝히고, 다종교 상황에서 한국 종교문화의 다양성과 각 종교의 실제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명우 기자



◇김호석씨가 그린 성철스님 영정에 임창순옹이 88자의 찬(贊)을 써넣었다.

성철스님 표준영정에 임창순옹 贊 88자 써넣어

성철스님의 표준영정에 찬(贊)이 더해졌다.

한국화가 김호석씨가 지난해 4월에 그린 성철스님의 영정은 해인사 백련암에 모셔져 있으며 지난해 연말 임창순(任昌淳)옹이 전문 88자의 찬을 써 넣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康津金錤秊畵(강진인 김호석이 삼가 그리다)/豐顙資頤望儼卽溫(턱이 풍부하고 이마가 넓어 바라보기에 근엄하고 대하면 온화하다)/浮世八風藏名尊(인간세상 팔십여세 종적은 숨어있어도 이름은 드높다)/正法妙悟不煩論(바른 법을 깨닫는데 복잡한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焉用知解頓破群昏(어찌 지혜를 가지고 안다고 하랴 한꺼번에 모든 어둠을 파헤쳤다)/山外無山水外無水(산밖에 산이 없고 물밖에 물이 없으며)/眞空不空無謂有謂(참으로 빈 것은 빈 것이 아니며 말하지 않은데 말이 있다)/醒夢一如心絶彼是(자나 깨나 마찬가지이며 마음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다)/獨昧神悅長依法喜(홀로 참선의 즐거움을 맛보았고 오래도록 법의 기쁨에 만족했다)/慈光已遠遺像在此(사랑스런 얼굴은 이미 멀어졌으나 남기신 화상이 여기에 있다)/秖公彩筆足以傳神(호석공의 빛나는 붓이 정신을 전하기에 충분하니)/我用作贊昭示後人(나는 여기에 찬을 지어서 후대 사람에게 밝게 보여준다)/西河任昌淳謹贊幷書(서하인 임창순이 삼가 찬을 짓고 아울러 쓰다)

문화재 소식

민속극·판소리 주제별 테마박물관 선다

충남도는 올해 45억을 들여 공주 마곡사와 예산수덕사에 성보박물관을 세우고, 공주시에 민속극박물관과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을 짓는등 모두 4곳의 테마박물관을 건립키로 했다.

공주시 의당면에 들어설 공주민속극박물관은 민속극 소품이 전시되는 동시에 다양한 민속극이 기획 공연될 예정이다.

또 공주 웅진면에 지역출신 명창의 이름을 따서 세워질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은 국악인을 육성하고 판소리같은 국악이 공연될 공간으로 활용된다.

무형문화재 지정확대 전통공예 대상 조사

문화재 관리국은 지정가치가 큰 전통공예기술중 미지정된 39종중 21종 66명의 기능자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능자들의 전승계보, 제작기법, 재료, 도구의 전통성 여부 등 전승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올 상반기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btn 불교문화대제전 올 초파일 여의도광장

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줄 'btn 불교문화대제전'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 23일~6월1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다. btn이 96년 중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행사는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를 전 불교도와 일반국민에 소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포교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불교문화대제전은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큰스님 법문등을 통해 불교의 정신과 교리를 널리 알리는 한편 불교문학의 세계를 영상과 사진자료, 불교출판물등의 전시를 통해 알리게 된다. 또한 범패 화청 공연, 작법 시연과 영상과 사진자료, 큰스님들의 작품과 인도, 네팔, 태국 등 불교국가의 주요 불교미술품도 함께 전시된다. 이와함께 불교문화대제전은 사찰의식, 사찰음식, 사찰복식, 사찰문화재등도 소개, 우리 생활속에 깃들어 있는 불교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btn은 이밖에도 오는 20일 청소년 불경 독송경연대회를 구룡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소림사 무승단공연, 지역사찰예술제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중이다.

불교예술원 개원 본격활동 승무·범패 통해 도심포교

승무와 범패 등 불교예술을 통한 도심포교 활동을 펼칠 한국전통불교예술원이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상도동 독도빌딩 2층에 56평의 연습실을 마련하고 불교예술의 전승보급과 전통예술의 계승에 나선 원장 운봉스님(포항 대성사 주지)은 "불교가 전통예술의 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데도 우리나라 국악인들의 60%가 기독교인인 것은 큰 문제"라며 전통불교예술원 개원취지를 밝히고 "불교행사와 각종 기념일, 법회 등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통불교예술원은 △불교예술전문대학 설립 △불교예술단 구성·운영 △정기법회 및 교리강좌 개설 △정기공연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특히 올 초파일에는 원효 사명등 불교역사와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님의 삶을 전통무용으로 꾸며 전국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전시현장 장애인모임 불교용품 작품전

"작품마다 장애극복 의지 담겨"

"어머,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을까?"

지난 10일 웅진갤러리에서 한마음장애인모임을 비롯 천마재활원, 연화복지원, 원심회, 대장회 가족들이 제작한 불교용품 전시회장을 찾은 보살들은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보살들의 아끼지 않는 칭찬에 작품 앞에서 작품설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불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진듯 표정이 상기됐다.

소아마비의 몸으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드느라 손이 성할 날이 없었던 김완석씨는 "나무의 한껍질 한껍질을 벗길때마다 우리들의 장애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듯한 마음으로 작품을 했어요"라며 작품에 임한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대변했다.

또 한마음장애인모임을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뒤치닥꺼리를 도맡아 온 채수선보살은 장애인들의 심정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3년동안 온 동네의 휴지통을 뒤져야 했어요. 헝겊과 재활용품을 찾는등 작품 재료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그 힘겨움과 서러움들이 한순간에 가시는 것 같아요"라며 장애인들의 전시회를 기뻐했다.

오손도손 모여 소담스런 자축연을 마련하기도 했던 이번 불교용품 작품전시회는 93년 12월의 전시회에 이어 만 2년만에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30여명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팔다리가 합쳐져 만든 작품 다수가 선보이고 있다. 뇌성마비,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 어눌한 손놀림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이 만든 열쇠고리 목걸이 쿠션 걸망 다기 염주지만 작품 솜씨만큼은 보기만 해도 수준급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를 찾는 발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장애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도필선 기자



◇한마음장애인모임 회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 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72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정가 1권 12,000원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전화:(02) 272-2398
(02) 269-2972
FAX:278-4069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02. 중아함경 1~3
05. 잡아함경 1~3
08. 별역잡아함경
09. 증일아함경 1~2
11. 대루탄경 (외)
12. 불반니원경 (외)
13. 아라한구덕경
14. 비화경 (외)
15. 불본행집경 1~2
17. 찬집백연경
18. 현우경 (외)
19. 출요경 (외)
20. 법구경 (외)
21. 대반야경 1~20
41. 법화경
42. 화엄경(60권본) 1~3
45. 화엄경(80권본) 1~3
48. 화엄경(40권본)
49. 열반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53. 대애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56. 현겁경 (외)
57. 유마경 (외)
58. 입능가경 (외)
59. 정법 염처경 1~3
62. 사분율 1~3
65. 선견율비바사
66. 구사론 1~2
68. 중론백론
69. 현양 성교론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71. 부휴당집 (외)
72. 선문염송 1~5
77. 조당집 1~2
79. 전등록 1~3
82. 무용당집 (외)
83. 백곡집, 월저당집
84. 법원주림 1~5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자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종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송율 1~3
1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성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합집경 (외)
149. 무량청정평등각경(외)
150. 대승보살장정법경(외)
151. 니야야빈두 (외)
152. 성실론
153. 지혜와 자비의 말씀(외)
154. 대승본생심지관경(외)
155. 방광대장엄경(외)
156. 과거현재인과경(외)
157. 문수사리문경(외)
158. 무소유보살경(외)
159. 금색동자인연경(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감국사집 (외)
169. 소요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본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외)

신행·포교 중점추진…"내고장이 불국토"

지방페트롤 병자년 지역불교를 전망한다

부산·경남

병자년 부산·경남지역 불교계는 그간의 외형적 행사 일변도에서 탈피, 거주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정적 불교인이라는 교세에 걸맞는, 내실있고 차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계는 대체적으로 올해의 사업요강에 있어 △불교자원봉사 체계화 △계층포교 활성화 △제 신행단체 대동화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와 '선우마을(회장 법선)' 등은 올해가 '불교청소년의 해'인 점을 주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집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준비, 실행중에 있다.

자원봉사 협의체구성 체계화

교계는 부산지역에 '자원봉사연합회'와 같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협의회가 없어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향후 그와 같은 조직구성도 아울러 모색하고 있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년 등장하는 '포교 활성화'라는 명제에 있어 부산교계는 포교의 실질화를 위해 계층포교에 전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포교의 최일선에 있는 스님을 비롯해서 법사, 지도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청소년, 직장인, 전문인, 장애인, 군장병 등 계층을 세분화해서 불법홍포에 나설 예정.

수갈래로 갈라져 신행활동의 고립화, 왜소화를 초래하고 있는 신행단체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동화합이 그 당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각 단체들의 이념과 방향성, 기득권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금, 공창, 두송 등 각 사회복지관들의 꾸준한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 복지관들은 비록 연륜은 짧지만, 실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따라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교를 생활 깊숙이 전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대구·경북 불교계가 불기 2540 병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초파일에 즈음한 불교방송의 개국 여부.

여러가지 현안중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팔공산소재 송신소 확보뿐이다. 진각회관에의 입주를 목표로 협상을 벌였던 방송국 입주문제는 임대료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고 20여억원에 달하는 출연기금모금도 열악한 지역경제사정, 정치사정한파 등에 의해 부진한 편이다. 이와같은 제반사정으로 인해 개국이 다소 늦어지리라는게 일반적 예측이나 불자들의 불교방송 본사급 이상의 불사로는 초파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진각종의 진각회관, 동화사가 신년사업으로 확정한 성보전시관 및 다비장건립, 사천왕문 복원, 릉일대불 마무리 공사 등이 있다.

해인사에서도 유물전시관과 마을주차장 건립시공을 앞두고 있다. 은해사에서는 불교방송 기금마련을 위한 이벤트사업을 기획 중이다.

기타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이전건립, 만불회 만불전 상량식, 관음사·영남불교대학의 본당회관건립 등 단위사찰별 불사도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활발한 교육불사도 기대된

대구佛放 초파일개국 '관심사'

에 대한 호응도가 커서 개국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도 통합 2년째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실무를 맡았던 이세호 사무국장체제가 물러나고 새 일꾼이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하형기 남도서점 대표, 박진수 신도회 사무국장, 김성수 동화사 기획실차장 등이다.

새 진용이 갖추어지면 사원련은 불교회관건립재개, 선본사 관할 환원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경기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 불교계는 금년에도 모든 부문에 걸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은 사찰중심의 단순한 신행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활불교'가 시도되고 있다. 포교당, 불교교양대, 신행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의 경우 생활전반에 걸쳐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전화, 자원봉사, 사회복지관운영등 불교의 대사회 부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경기지역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불교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먼저 강화도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강화불교가 활

생활불교 확산 포교조직 재편

를 띨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움직임으로는 팔만대장경 관각지 선원사의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길상면에 선방이 세워진다.

생활영역권이 하나로 묶여있던 하남과 광주가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이 지역 불교계도 금년은 자체 조직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원불교의 숙원사업인 수원포교당 중창불사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해 덕유사회복지관 운영권을 석왕사가 맡으면서 지역사회봉사에 새 전기를 마련한 부전불교는 금년에도 석왕사를 주축으로 외국인노동자포교, 우리농촌살리기 생협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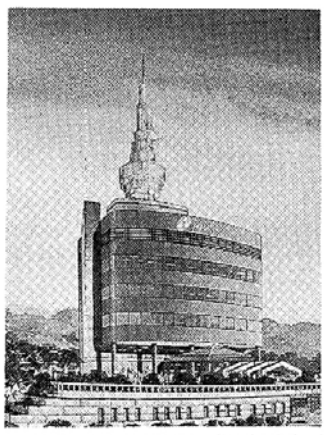
다채로운 신행활동이 예상되는 한수이남에 비해 한수이북 불교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의정부 불교계는 금년에도 시에서 주최하는 회룡문화제에 참여해 불교문화를 시민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신도시 일산에는 통도사 포교당 여래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여 지역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청소년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불교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대구 청주불교방송 개국에 이어 전주 춘천도 불교방송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청주방송국 조감도.

전라

전남북 불교계는 병자년 새해를 맞아 침체된 지역불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산중불교에서 시중불교로의 전환에 따라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기증등 생명공양과 인간방생의 실천에도

복지시설 확충 생명사상 실천

역점을 둔다는 흐름이다.

또 빈약한 광주·전남지역에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 복지관을 더욱 확충해 나가며 백양마을 등을 비롯한 불우시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법회및 포교활동을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계도 광주불교방송이 제자리를 잡아나가고 불교TV도 광주지사를 연초에 개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광주 전남지역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금산사를 계율 근본도량으로 사격을 갖춰 옛 가람의 명성을 되찾기로 하는 등 도량불사, 포교불사, 지역불사에 역력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계종이 지정한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 포교를 위한 대형행사를 계획중에 있어 침체된 지역 룸비니(고교) 보리수(초·중) 학생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역불교의 화합을 위해 초파일에 열릴 전북불교연합 찬불가합창제를 필두

강원

불교포교의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강원도는 병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포교의 원년으로 군 및 청소년 포교와 신도들의 교육에 주력할 전망이다.

춘천을 비롯 홍천, 인제 등 영서지역은 지역여건상 군부대가 타 도시보다 많이 소재하고 있어 군불자 포교활동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포교대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법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재가불자대상으로 하는 불교교양대학의 질적 향상, 신도회의 활성화, 불

복지관·유치원 신설포교 새 장

교방송유치, 춘천불교회관 개관, 관내 신행단체 연합행사, 각 시·군 소재 불교유치원 신설 등의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어 어느해보다 활발한 불교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불교 불모지라는 오명을 지워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암연합회와 신도단체의 임원개편을 서둘러온 원주 횡성지역은 새해부터 거듭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암연합회와 신도회의 임원개편으로 인한 96년 각종 연합행사가 소홀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원주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사암연합회의 새 진용을 갖춰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 문화행사를 비롯 관내포교를 위한 포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소쩍새 마을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역불자뿐만 아니라 전국불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연중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내 복지관과 사철 어린이 법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은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을 개발, 어린이 포교에 새장을 여는 원년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동해안 시대를 맞고 있는 강릉, 속초 등 영동지역은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6년여 동안 꾸준히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승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타 도시보다 경승활동에 있어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동지역은 경승활동뿐만 아니라 이달중에 제소자의 포교를 위한 강릉교도소 법당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재소자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통일기원대법회, 원각사 영·육아보육시설이 건립되면 지역 불교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

불교청주방송이 본격적인 개국작업에 착수한다. 8월까지 청사준공을 마무리하고 9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 개국할 예정이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이달 25일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향모색에 나선다. 또 관음사는 지역

청주佛放 10월 개국준비 한창

불자들에게 편리한 신행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찰내 270여평 규모의 불교회관 '천불전' 건립에 들어갔다.

도시규모와는 달리 불교활동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 올해에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활동이나 계획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그러나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이런 심각성을 일깨우고 대전지역 불교흥포와 불자간의 단합을 위한 '시민을 위한 대법회'를 이달말경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운전불자연합회 역시 이달말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 '달리는 전법사'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군불교진흥회와 어머니불교회의 후원으로 매달 열려왔던 논산훈련소 훈련병 수계법회는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에도 5만여명의 군불자를 배출한다.

또 지난 10월 법당 낙성식을 봉행했던 삼군법당 수국사도 군불자 및 지역민 포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주

제주도의 불교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향 모색보다는 각 신행단체를 모태로 봉사활동을 위주로한 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병자년 새해를 맞는 제주지역의 불교활동 계획 역시 전시회 음악회 성지순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산이나 서울 등의 지역과는 달리 인적, 물적

한라불교문화 정착하는 해로

열세에 있는 제주의 각 신행단체들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매달 전개한다는 기본사업틀에는 변화가 없다. 이같은 사업계획은 제주지역내에서 봉사활동이 특징적 불교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지역내에서 순수불교사회단체로 명명하고 왕성한 불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타제주중앙클럽은 조직내에 기획팀을 구성, 포교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불교새싹포교회를 비롯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신행단체들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여느해보다 더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달 청소년 수용복지단체를 방문,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새싹포교회는 전반기·후반기를 나눠 고아원 학교를 순회, 어린이법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권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불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 세계농아 볼링권선수대회에 한국대표선수로 참가한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의 이태원, 홍기범 불자(사진 왼쪽부터).

농아불자 볼링선수 4명 세계대회 상위권 '쾌거'

명상으로 마음 다스려 스트라이크 '몸짓 환호'

열개의 하얀 핀이 와르르 쓰러지는 소리에 '스트라이크'를 몸짓으로만 외치는 건강한 불자 농아볼링선수들이 세계대회에 첫 출전, 상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안고 돌아왔다.

지난 6일~8일 대만 대북시에서 장애한계에 도전하는 첫 '세계농아 볼링 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한 불자선수 홍기범, 이태원, 조대용, 최귀복씨가 바로 그들.

지난해 7월 열린 전국 농아볼링선수권대회에서 상위에 입상, 세계대회 출전티켓을 따낸 10명의 선수 가운데 4명이 대한불교장애인 포교회 회원들이다.

이들 농아볼링선수들은 세계 11개국 1백50여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10위권내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5년전 원심회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행생활을 해 온 이들은 한달에 두번씩 불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그라미라는 친목 볼링모임을 해 왔다.

또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 참석해 듣지 못하는 대신 수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기도 했다.

대표선수로 선발된 뒤 나머지 대표선수들과 한달간의 합숙훈련을 받기도 했던 이들은 "항상 시합에 임하기 전에 법회시간에 배운 명상법으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것이 경기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세계대회 우승 자리를 놓쳐 못내 아쉽다"고 말하는 이들은 2년뒤 대만에서 열리게 될 세계대회에서는 꼭 해내겠다며 소리없는 화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화이팅!"

이은자 기자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

불국토 산하 '선우마을'… 자발 참여 유도

조계종이 올해를 '불교 청소년의 해'로 정함에 따라 청소년 관련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불국토 산하 '선우마을(회장 법선)'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8일 부산 개금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성환(서면중 1년)군 등 부산지역 중학생,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발대식에서 법선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적 자원봉사에서 탈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동국·위덕 종립대 대입 경쟁률 높아

96년도 대입 원서접수를 최종마감한 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위덕대(총장 손제석)의 지원현황결과 각 4.5:1과 11.1:1로 집계돼 종립대학들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는 사범대 체육교육학과가 24.15:1로 가장 높은 경쟁을 보였으며 계열별로 모집한 위덕대는 공학계열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동국대와 위덕대는 오는 18일 면접을 시행하며 동국대는 27일 이전 위덕대는 2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맑고 향기롭게…' 올 사업
가정문제해결 주력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올해 주제를 '맑고 향기로운 우리집'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가족과 가정의 문제들을 점검, 그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가정 주제의 정기강연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여행 △가족 수련회 △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설문조사 및 대화마당 △자녀와 부모들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을 발표키로 했다.

법정스님 강연회는 전주(1월 27일) 서울(3.6) 부산(3.29)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명칭도 '맑고 향기롭게 모임'으로 변경하는 한편 서울모임 사무국장에 진명스님(동국대 비구니회장)을 임명했다.

방송사 기독교 편향 심각

성탄절 특집 초파일의 4배… 불교소재 개발 시급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의 방송보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크리스마스 특집방송이 부처님 오신날의 무려 4배 이상 많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방송사들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고 있음이 지적됐다.

각 방송사 편성표, PC통신 방송 편성표, 보리방송모니터회 프로그램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인 5월 6~7일과 크리스마스인 12월 24~25일 방영된 TV특집은 총 7회와 31회로 크리스마스에 특집방송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부처님 오신날 특집방송 편성은 특선영화, 다큐멘터리, 법요식실황중계에 그친데 반해 크리스마스 때는 보도 영화,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찬송가부르기, 연주회, 드라마, 쇼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2 TV의 경우 부처님 오신날에는 단 한편의 특집방송도 편성하지 않았으나 크리스마스에는 5편의 특집을 편성한 것도 공정성을 잃은 대표적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방송가 일부에서의 "영화등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려고 해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은 "전통문화인 불교적 소재의 발굴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풍부하다"면서 "불교TV에 제작비를 지원해 드라마, 어린이용 만화 등을 제작해 이를 각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청소년지도자 모임준비
개별 활동지양 정보교류등 활성화

대구·경북지역을 통괄하는 불교청소년 지도자모임이 결성될 전망이다.

21세기 청소년포교를 위한 대구·경북 청소년지도자대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불국사 심검당에서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성수스님, 청소년지도자등 6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모임은 그간의 개별적 활동을 지양하고 청소년지도자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정보교류확대, 전문성 제고 및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대구·경북권역을 대구광역시권,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등의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임시 실무자를 뽑았으며, 지역 청소년지도자모임의 정식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임시대표로 법명스님(경주 향림사)을 선출했다.

청주 BBS사옥 3월 기공

법당등 마련 불교센터로…용담스님 10억원 출자



◇ 용담스님

불교청주방송개국준비위(위원장 월성스님)는 BBS 신축사옥(연건평 4백여평 지하1층 지상4) 건물조감도를 마련하고 3월초 건물기공식을 갖기로 하는등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 청주방송은 지난 9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되는 방송국 사옥은 3~4층의 불교방송 시설을 비롯 법당과 공개홀, 신행단체사무실 등을 마련해 청주불교 종합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용담스님(전 법주사 기획국장)이 10억원을 출자키로 해 1월 하순에 열리는 운영위에서 대주주로 추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괴산 다보수련원 6월 개원

진흥원, 96예산 1억4천여만원 책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오는 6월초 개원하는 충북 괴산의 다보수련원을 교사 불교연수 신행단체지도자연수 등 교육사업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위해 구랍 18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또 △교육연수사업 △학술진흥사업 △포교사업 △불교방송 군법당건립 등 고유목적사업에 모두 10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진흥원은 △〈한국불교총람〉 개정판 발행등 불서출판 및 보급 활성화 △불교문화센터 다보법회의 효율적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다보수련원은 지난 92년 11월 공사를 시작, 현재 53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완료하고 지상 2층 지상 1층 226평의 수련원을 건립하고 있다.

홍제중 수계식 봉행
학부모 112명도 수지

학교법인 동국학원 홍제중학교(교장 김원식)는 구랍 23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불교학생회, 교직원 및 학부모 1백12명이 참석, 5계를 수지했다.

불교간병인협 운영권
조계종 복지재단 귀속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는 구랍 23일 임시 임원회의를 열고 협회 운영권을 조계종 복지재단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불교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간병인 활동의 활성화와 원활한 협회운영을 위해 복지재단에 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년하례식
4일 통도사 정변전

조계종은 불기 2540년 병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월하종정스님의 주석처인 통도사 정변전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교육원, 포교원 원장스님, 각부·실장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례식에서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온나라가 역사적 격동의 시기를 거친 지난해 종단은 종토세 등 현안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발전을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례식에는 월하종정스님이 건강관계로 불참했다.

10·27법난 진상규명 재촉구

조계종 특위, 국무총리에

조계종 10·27 법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9일 국무총리에게 '80년 10월 27일부터 전개된 소위 불교계 정화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서'를 전달하고 10·27법난 수사를 요청했다.

특별위는 촉구서를 통해 △10·27 불교계 수사의 발단 △불교계 정화실무대책반편성운영 △부정축재 재산환수 보도경위 △80년 10·30 전국사찰 수색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특별위는 8일 소위원회를 갖고 △2월부터 가해자, 피해자 증언 청취 △10·27 법난 백서 발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청원서 제출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불국토 건설" 발원
부산불교련·신도회 하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와 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 5일 코모도호텔에서 공동으로 불교계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스님, 신행단체장을 비롯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안석태 부산지방법원장, 곽정출, 김진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하례회는 찬불가, 신년교례, 법어,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지역 불교계 첫 신년 공식모임인 이날 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 융화, 평등, 복지의 불국토 건설에 힘쓸 것'을 발원했다.

'맑고 향기롭게' 본부
2월9일 수안사서 5재



불자가수 김광석씨 타계

언더그라운드 가수이자 BBS라디오 가요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를 진행하기도 했던 김광석씨가 지난 6일 새벽 마포구 서교동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김광석씨 빈소에는 법정스님 청학스님 등이 조문 영가를 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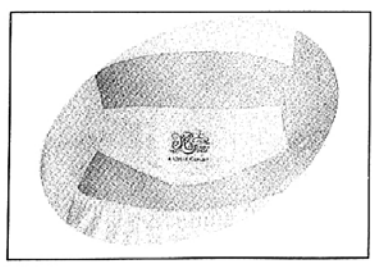
김광석씨는 그동안 '나의 노래' '일어나' 등의 히트곡을 남기는 등 활발한 대중음악 활동을 해왔으며 법정스님이 추진하는 맑고향기롭게 운동에도 동참했었다.

김광석씨의 장례식은 지난 8일 경기도 벽제화장장에서 치러졌으며 그의 유골은 서울 서초동 수안사에 안치됐다.

한편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는 오는 2월 9일 김광석씨의 5재를 집전한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우리콩 으로 만든 우/리/된/장 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콩 우리된장



우리 콩 우리 된장 가공공장에서는 우리 콩 살리기 운동본부와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리 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콩이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경북 청송에서 우리 콩으로 재래식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와 우리 콩을 살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함께 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배달 가능(지방 택배료 별도)

소비자 가격 1말(斗) 4개
값 32,000원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 지정

우리 메주 서울 총판 ☎ 553-0089, 558-004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90-36

영겁으로 흐르는 감탄의 '佛心藝心'

'미술의 해'를 보내기가 아쉬운 듯 새해 벽두부터 대형 전시회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후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김홍도展, 몽골전통예술의 시조 잔바잘의 불상이 돋보이는 대 몽골展, 지난해 6월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들의 귀국展이 그것이다. 이중 불교와 관련된 화제작들을 모아 지상展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김홍도 전

남해 관음도 관음보살을 그린 것으로 독특한 도상의 성격에서부터 지극히 조선적 형식으로 완성시킨 김홍도의 만년작.



염불서승도 참선에 몰입해 있는 노승의 뒷모습에서 김홍도의 무한한 불교세계를 엿볼 수 있다.

신춘 불교미술 지상전

김홍도전 연일 관람객 물결

O… 김홍도(1745~1806)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월25일까지 열리는 김홍도 특별전에 출품된 작품은 3백여점. 산수 풍속 인물 도석(道釋) 영모 화조 사군자 유묵 등 김홍도의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작들이 대거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김홍도가 불교신자였음을 보여주는 '남해관음도' '염불서승도' '지단관월'과 용주사에 봉안돼 있는 '삼세여래체탱'이 전시돼 불자들의 관심을 끈다.

대몽골전 초원문화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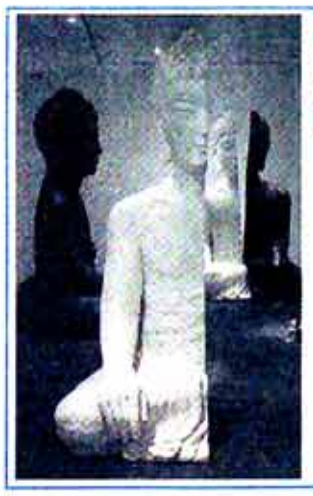
O… 찬란한 몽골문화가 서울에서 화려하게 되살아난다. 서울시와 몽골국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의 자매 결연을 기념하는 '칭기즈칸의 영공—대 몽골展'이 지난 6일 개막, 오는 3월27일까지 서울 신문로 시립미술관 6백년 기념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몽골유물은 총 2백 28점. 몽골의 국립박물관 및 지역 박물관, 고고학 연구소, 국립문서보관소,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는 국보급 칭기즈칸(1162?~1227)시대의 무구류를 비롯해 의상 금은제 장식품 생활용품들이 총망라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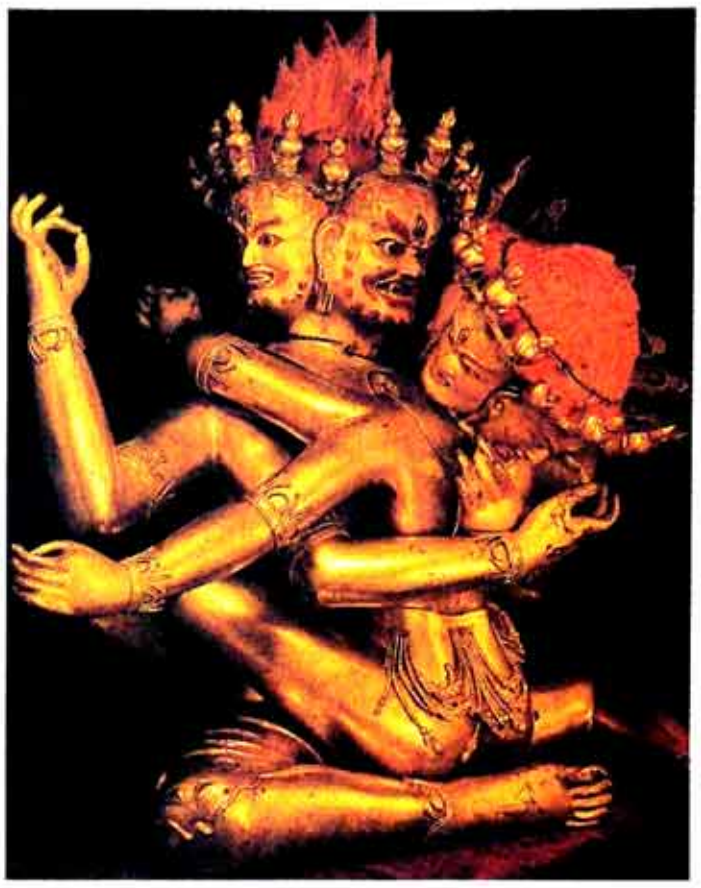
베니스전 설치미술 등 주목

O… 지난해 6월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됐던 베니스 비엔날레의 특별전인 '호랑이의 꼬리' 귀국전이 오는 23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창설 1백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전시는 안성금 하종현 윤명로 이중상 심문섭 등 한국적인 미와 정신 우리의 역사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온 작가 15명이 참가했다.

한편 내달 10일부터 한달동안 예술의 전당 제1전시실에서 역시 베니스비엔날레 귀국전이 열린다. 특별상을 수상한 전수천씨와 곽훈 윤형근씨 등의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



베니스전



대몽골전

마하마야 중생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몽골의 대표적 불상. 남성부처를 마하마야, 여성부처를 사그탄이라 하고 자비를 베푸는 뜻에서 여러 방향으로 손을 뻗고 있으며 여성을 숭상하는 의미로 여성부처를 안고 있다.



부처의 소리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탐구를 불교사상에 근거해 소리·형위·평면·설치 등을 통해 형상화한 베니스비엔날레 참가작가 안성금씨의 대표작.

황금으로 쓴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고귀하게 담는다는 뜻으로 몽골인들은 금과 은 각종 보석을 이용해 불경을 만들었다.



KBS 연기대상 탤런트

나 문 희 씨

인터뷰

KBS 일일연속극 '바람은 불어도'에서 구성진 광안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개탈스러운 칠순노파의 연기를 보였던 불자 탤런트 나문희(56세)씨에게 있어 96년은 더욱더 무르익은 연기가 나올 것만 같이 서광이 비치는 해다. 왜냐하면 그 광안도 할머니 역으로 지난 연말 연기인생 30년만에 연기자들의 최고 영예인 KBS 연기대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지난 69년 MBC 성우 1기를 시작으로 방송과 인연을 맺은 그녀는 30세가 되던 해 MBC 드라마 '이상한 아이'에서 멍게엄마역으로 브라운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후 '나의 어머니' '희망' '여고 동창생' '시장 사람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한 연기활동을 해왔고, 방송계에서는 일찍이 성실한 연기파 배우로 정평이 났었다.

KBS 연기대상을 받은 이후 나문희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께서 시상식 바로 다음날 저에게 축전을 보내셨을 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나문희씨는 15년째 정등 경국사에 다니는 독실한 불자다.

"자비와 지혜" 좌우명

연기생활 30년만의 행운
경국사 신도…법명 '철보화'

지관스님과의 인연도 경국사에서 시작됐다. "철보화라는 제 법명도 지관스님께서 지어 주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촬영스케줄로 늘 바쁜 그녀지만 매월 관음재일 지관스님의 설법이 있는 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경국사에 나가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나문희씨는 "불자는 자비로울 때는 한없이 자비로와야 하지만, 지혜로와야 할 때는 또 반드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산다며 "연기활동은 물론 나의 삶을 자비롭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겠다"며 노인 분장을 마친 분기어린 얼굴로 다시 촬영에 들어섰다.

이은지 기자

생활 속의 불교 ⑤⑦

자기를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께 붙여진 열 가지 명호는 모두 다 부처님의 큰 덕을 기리는 이른바 덕명(德名)이다.

인(人)·천(天)으로부터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응공·應供)

바르고 완전하게 진리를 남김 없이 깨달은 이(정편지·正徧知)

지혜와 언행이 다 함께 완전한 이(명행족·明行足)

미혹의 세계를 잘 뛰어 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선서·善逝)

세간·출세간의 일을 다 아는 이(세간해·世間解)

세간에서 가장 높은 이(무상사·無上士)

중생을 잘 조복·제어하여 열반에 인도하는 이(조어장부·調御丈夫)

미혹중생, 특히 하늘과 사람을 인도하는 이(천인사·天人師)

깨달은 이·눈뜬 이(불타·佛陀)

많은 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이(세존·世尊)

그러나 이 열 가지 명호 가운데 어느 것도 부처님을 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깨달은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한 이, 그래서 더욱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고는 해도 엎드려 빌어야 할 대상, 복을 내려 주십사 기원할 대상이라는 뜻은 없다. 왜 그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진리(법)는 진리로서 확정되어 있었지 부처에 의해 만들어진(창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는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분이다. 그래서 부처는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미혹한 우리들을 향해 '그대들도 오라, 와서 보아라. 이 길은 현실적으로 불수 있고 증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 누구든 와서 보아라. 길은 열려 있다'라고 손짓을 해 준 분이다. 우리가 머리 숙여 존경하고 숭배하는 까닭은 길을 발견하고 가르쳐 준 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고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그 길을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 전에 엎드려 복을 주십사! 빌고 빈다. 돈을 벌게 해 주시오. 합격하게 해 주시오. 건강하게 해 주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면서 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날날이 보여 주셨다. 따로 비밀스럽게 감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셨다. 지혜 있는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밀 주머니는 없다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내게만 그 주머니를 열어 주십사 빌고 빈다. 막무가내로

법구경은 말한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말씀이다.

이렇듯 분명히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뿐이니 그 밖에 또 무엇을 의지하랴' 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복에 매달린다.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제자이기를 자처하는 셈이다. 말 안 듣는 제자를 좋아할 스승이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 열 가지 명호처럼 인·천의 위대한 스승이시니 그런 제자도 긍휼히 여기실까?

지혜 있는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리라.

협찬 : 주 인 공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현대불교

법공양판 (천태종) 18~19면
신행수기 · 건강백세 20면

"20세기 서구지성에 불교사상 단비 뿌려"

보르헤스의 ① 불교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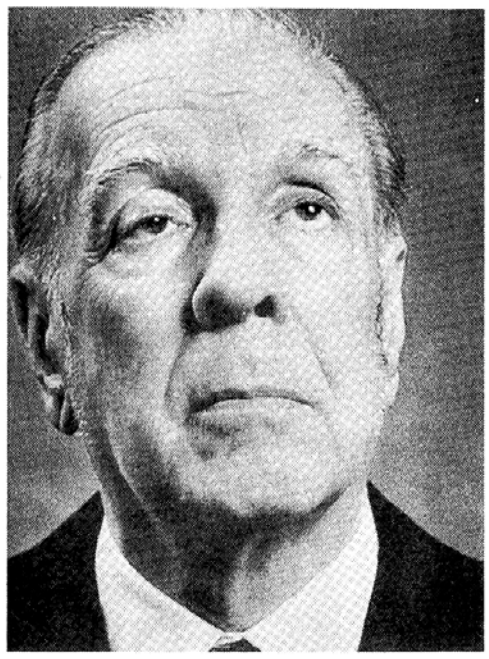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0세기 서구지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작가다. 문학가로 사상가로 명망 높은 그가 타계 10년전에 〈불교강의〉를 저술 자신의 사상근저에 불교가 뒷받침됐음을 알게한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보르헤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화' 시켰는지를 정확히 알 수있는 〈불교강의〉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편역자 약력



김 홍 근

▲1957년 부산 生
▲외대 스페인어과 졸업, 同 대학원 수료(문학석사)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원 수료(문학박사, 중남미문학 전공)
▲서울대 대학원 강사
▲고려대 대학원 강사
▲현 한국외국어대 강사 ·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 · 문학평론가



◇20세기 서구사상계에 불교적 사상의 정수를 단비처럼 뿌렸던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20세기의 창조자'라고 불리는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는 1976년 〈불교강의〉를 저술했다. 20세기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후기구조주의와 해체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등 최근 서구사상사 상의 큰 반전을 이루고 있는 정신적 흐름의 사상적 기초와 인식의 맹아(萌芽)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보르헤스가 불교강의를 직접 저술할 정도로 불교에 깊은 애착과 정통한 이해를 가졌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연재가 진행됨에 따라, 작금 서구사상가들이 맞고 있는 '인식의 전환'에 불교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가 드러날 것이다.

19세때 불교 깊이 이해

보르헤스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의 대표적 단편소설인 '알레프'를 보자. 이 소설에는 보르헤스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사귀던 애인이 죽고난 뒤 기일을 맞아 그녀의 집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추모 모임이 열렸을 때 그도 참석한다. 그곳에서 죽은 애인의 사촌오빠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반쯤 실성한 것 같은 사인이었다. 왜냐하면 취중에 "지구 표면 전체를 묘사하는 시를 쓰겠다"는 호언을 보르헤스에게 떠들어 대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보르헤스에게 시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외곽에 있는 자신의 고택 지하실에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물체가 있는데 그것은 동전만한 크기의 발광체(發光體)라고 알려준다. 그말을 외면했던 보르헤스는 여러날이 지난 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집을 찾아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집 지하실에서 보르헤스는 '알레프'라고 불리는 발광체를 보게 된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때 나는 알레프를 보았다. … 그 거대한 순간에 나는 수백만 가지의 황홀하거나 잔혹한 장면들을 보았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많은 장면들이 한 점에서 보이는데도, 서로 겹쳐지지도 않고, 투명한 실루엣으로 보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본 것은 한 번에 보았는데, 글로 쓰자니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할 수 밖에 없다. … 알레프의 직경은 2~3센티미터밖에 안 되지만, 우주 전 공간이 축소되지 않고 거기 있었다. 각각의 사물의 갯수는 무한했는데,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달이 복수가 되는 것처럼) 나는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나는 내 얼굴과 내장을 보았으며, 너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현기증이 나서 울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이름을 남용하지만 결코 본 일이 없는 玄玄한 가상의 대상, 즉 불가해한 우주를 내 두 눈이 보았기 때문이다." (보르헤스 전집 Ⅰ, 625쪽 이하 보르헤스 글은 원문에서 필자가 직접 번역)

보르헤스의 서술은 평범한 소설 속의 묘사를 뛰어 넘는 직관이 담겨 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같이 짧은 순간에 우주의 신비를 깨달은 어느 각자(覺者)의 체험담같기 때문이다. 보르헤스는 그 무한 시공간체(時空間體)의 이름을 〈알레프〉라 불렀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알파베트의 첫글자로, 흔히 문명의 기원을 상징하며 또한 신성(神性)을 담고 있는 글자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알레프〉는 희랍어에서는 알파로 발음된다.

붓다 깨달음 자기체험 통해 자세히 묘사
포스트 모더니즘등 현대철학 기초 마련
소설 '알레프' 화엄사상 바탕 직관적 서술 뛰어나

보르헤스는 그의 〈불교강의〉중 붓다에 관한 전설을 설명하는 곳에서 싯다르타 태자가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 앉아 정각을 이루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우주의 신비 깨달아

"홀로 나무 아래 정좌한 싯다르타는 순간적으로 자신과 모든 중생의 수많은 전생을 보았다. 한눈에 우주 구석구석의 수없는 세계를 전관(全觀)했다. 그뒤, 모든 인과 과의 사슬들을 직관했다. 새벽녘에는 사성제를 관하였다." (보르헤스, 〈불교강의〉 10쪽)

보르헤스 자신이 묘사한 이 글을 보면, 그의 단편 〈알레프〉의 모티브가 바로 붓다의 정각 장면이고, 자신이 지하실에서 본 광경은 붓다가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직관한 공을 관통한 진리의 모습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세히 풀어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르헤스는 그의 단편을 통해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밝혀보고 싶어 했던 것이고, 또 그 작업을 통해, 그도 붓다처럼 우주의 비의(祕義)를 엿보았다는 체험을 작품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불타가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정밀하게 표현한 〈화엄경〉의 핵심인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 선재(善財) 동자가 오랜 순례 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전관한 장엄세계의 모습은 보르헤스가 〈알레프〉에서 묘사한 놀라운 체험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알레프는 탑으로 상징된다.

"숫자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모든 탑들이 전혀 따로 따로의 방식대로 서 있는게 아니라, 각각의 탑들은 나머지 모두와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 나름의 개별적 존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 젊은 순례자 수다나(善財)는 각개의 탑 하나하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탑들 속에서, 즉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출판부, 343쪽에서 재인용)

의상대사가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화엄일승법계도〉에서 칠언절구의 시로 노래했듯이, 보르헤스도 그것을 〈알레프〉라는 소설속에서 작품화한 것이다. 〈알레프〉는 1949년 발표된 작품이다. 따라서 보르헤스는 매우 일찍부터 불경을 읽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는 여러차례 인터뷰에서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통해 불교를 알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14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그가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읽은 시기는 독일어를 배워 독일 문학과 철학을 원문으로 읽었던 1918년(19세) 때였기 때문에 불교는 이때 이미 상당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불교강의〉를 쓰면서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 다이세즈 쓰지키(D. T. Suzuki), 파울 도이센(Paul Deussen), 아더 윌리(Arthur Waley) 등 수많은 불교학자와 중국 문학가들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또한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정통했고, 주역의 서문을 쓴 일도 있다. 그가 만년에 이르러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가장 애착을 가진 일곱가지 주제를 7일간에 걸쳐 강연을 했을 때도 불교를 포함시켰다. 불교는 보르헤스가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집착했고, 그의 사상이 변화를 맞을 때마다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중요한 테마였다.

보르헤스는 1899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변호사인 아버지과 영문학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된 책이 무한히 꽂혀있었던 도서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특히 할머니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선 영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 영향으로 그는 유년시절부터 많은 영국소설을 읽게 된다.

노장사상에도 정통

보르헤스는 15세 되던 해인 1914년에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이주한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식 교육을 받으며 불어와 독어를 익히게 된다. 이어 라틴어도 마스터하게 된다. 1921년 조국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문예사조를 반영하는 문학잡지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초기에 당시 유행하던 아방가르드 풍의 시를 썼다. 그러나 곧 그의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해인 1938년 시립도서관에 취직한다. 같은 해 성탄절날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빠진다. 의식이 돌아온 뒤, 스스로의 사고 능력을 실험해 보기 위해 처음으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의 대표작은 1944년 출판한 단편집 〈픽션〉과 1949년 출판한 〈알레프〉에 수록된 소설들이다. 그가 처음 이 작품들을 발표했을 땐 당시 문학계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단지 소수의 지식인 작가들만이 그의 글을 읽었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던 그는 1961년 베케트와 유럽출판인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이후 그는 1967년 하버드 대학 찰스 엘리엇 노른 렉취에서 강의하고 계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등 1986년 죽을 때까지 왕성한 문학활동을 하게 된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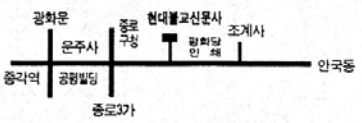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선물코너'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한 권의 불서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는 벗들에게 한 해 동안의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 예쁘게 포장해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천 태 종

법공양 페이지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상월조사, 지자·의천 '천태법등' 다시 밝혀

천태종 중창 上月圓覺 대조사



조사는 원효대사가 수행했다는 태백산 유곡석굴에 은거, 참선을 했다. 이때 대조사는 수행을 위해 보름, 20여일씩을 단식하여 수마(睡魔)와 싸우고, 목이래 가시덤불을 받치고 정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벽적간두에 서서 생의 의미를 천착하여 마침내 정혜(定慧)를 자증, 개달음에 이른다. 2년간의 이러한 정진은 또다른 세계에 대한 체험을 촉발시켰다.

1942년 중국의 동삼성(만주국)에 들어가 수행과 교화를 폈다. 대조사는 중국 본토로 들어가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國淸寺)와 관음성지 보타락가산을 예참하고, 서역까지 편력하면서 각고의 수행을 계속하였다.

대조사는 8·15를 전후하여 깊이 뜻한바 있어 국내 명산승지를 두루 답사하시다가 소백산 구봉낙맥 아래 연화지에 이르러 초암을 얽고 불석신명(不惜身命)으로 지관삼매(止觀三昧)의 각고 정진을 했다. 지관삼매에 들면 며칠이고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엉덩이의 살점이 뭉그러지는 것도 몰랐다. 영하의 추위에도 대조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참선을 쉴 때는 관음정진에 주력하셨다. 오늘날 천태종의 수행가풍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전쟁중에는 시봉 대충(천태종의 2대 종정) 스님과 신도들의 강권으로 공주 마곡사로 피했다. 피난 중에도 대조사는 수행정진하면서 굶주린 사람을 도왔고,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케했다. 그리하여 주위 인근에서는 이인이 나타났다고 했다.

수복후 소백산으로 돌아온 상월 대조사는 다시 초암을 짓고 수행과 교화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대조사는 천태지관법으로 수행하면서 만경구적(萬境俱寂)의 공삼매(空三昧)를 체인하고, 1962년 12월 28일 활연대오하여 무상대도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산빛은 고금 밖이요(山色古今外), 물소리는 있고 없는 중간이로다(水聲有無中). 한번 보는 것이 만갑을 깨뜨리니(一見破萬劫), 성품 공한 것이 바로 부처님 어머니로다(性空是佛母)'라는 오도송(悟道頌)을 읊었다.

대조사는 71년 6월 17일, 다음과 같은 열반게를 남기고 마침내 열반에 드니 세수 64세 법랍 49세였다.

'모든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諸佛不出世), 또한 열반에도 들지 않았네(亦無有涅槃).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으니(生死本空寂), 했다가 비는 것이 한 달의 바퀴로세(盈虛一月輪).'

피나는 수행끝 無上大道 성취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병든 중생 교화구제

1월18일 제84회 탄신일

삼척에서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2대 독자로 1911년 출생한 상월 대조사는 속명이 준동이다. 조부와 친부는 모두 유학에 정통한 분들로 한말의 풍운과 난세를 피해 산간에 은둔하면서 사는 것으로 자족했다. 대조사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준수하고 상품이 관후했다. 7세때 삼문서당에서 수학하였으며, 15세때에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가〉의 서(書)를 마쳤다.

우연히 '자경문(自警文)을 접한후 불문에 든 상월대조사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은사인 법은(法隱)스님을 만나, 오늘날 천태종의 수행덕목인 주경야선(晝耕夜禪)과 운력을 하면서 은사의 시봉을 받는 등 어려운 수행을 해나갔다.

은사 법은스님이 3년만에 입적하자 대교과를 마치기 위해 건봉사, 유점사, 월정사 등의 명강백을 찾았으나 그리 흡족하지 않았다. 대

종지

천태종의 근본 종지는 일승묘법의 교의를 근본으로 하여 불성(佛性)의 보편과 존엄을 스스로 믿고 자각각타(自覺覺他)의 보살도를 실천하여 안으로 자아완성을 기하고 밖으로 사회의 정화와 각화(覺化)로써 일체중생 개성불(一切衆生皆成佛)과 불국토건설을 실현하는데 있다.

자아완성 사회정화
불국토 건설 실현

이러한 확고한 기반 위에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천태종은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이념정신 계승과 유지를 받들고 흠앙(欽仰)하는 조사신앙과 관음신앙 즉 수행불교를 통한 염불선이 종풍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수행

천태종은 화삼귀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지관수행(止觀修行)을 하고 있다. 즉 행주좌와(行住坐臥) 가운데 무시선(無時禪)이 있으며 여기에는 지관수행이 최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법화경 가르침 따라
낮에 일 밤엔 염불

또한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통한 삼종지관(三種止觀)과 사종삼매(四種三昧)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사부대중은 일년에 두차례 한달씩 안거를 실시한다. 주경야선으로 종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찰에 내화관음정진을 한다. 이것은 대조사님 재세시 사부대중에게 법화경전의 관세음보살문품에 수록된 가르침에 따라 일념으로 관음보살을 명호하여 수행정진 하라고 교시한데 따른 것이다.



총본산 구인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있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수복·애국·구세·대중불교를 지표로 3백여명의 스님이 수행·전법에 전력하고 있다.



수행 천태종은 사부대중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하는 수행 가풍이 독특하다.

교세

천태종은 상월대조사가 주창한 새불교, 새 신앙 운동의 염원과 광도중생의 대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의 이념 아래 새 신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지표는 사회적 대중불교, 산행적 수복(修福)불교, 실천적 생활불교, 실질적 애국불교, 이타적 구세불교를 구현하는데 있다.

종단의 기구조직은 제3세 길도용 종정예하를 구심점으로 총무원, 감사원, 종의회, 참의원, 원로원이 있고 독립기관으로 금강학원, 종책위원회, 고시위원회, 상벌위원회가 있다. 총무원 산하로 종단 문서포교, 홍보 등을 담당하는 '천태종보'와 월간 '금강'이 있다. 그리고 금강학원은 종립교양대학인 금강불교대학이 있으며 본교가 서울 독섬에 자리하고 분교는 부산 삼광사 안에 있다.

신도 155만명·말사 포교소 350곳
승·속 공동참여 '새 불교운동' 전개

현재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으로 전국말사 및 포교소 350개소, 전국 신도 155만, 상주승려 3백여명, 연건평 6500평, 50여동의 당우들이 경내를 꽉 메운채 들어서 있다.

또한 말사 가운데 부산 삼광사는 현대규모의 전국 최대사찰로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서울 관문사, 대전 광수사, 대구 대성사, 울산 정광사 등에서 굴지의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어 묵일승현의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어 묵일승현하는 천태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 산도 중앙기구로는 전국신도회와 전국 청년회 중앙기구인 중앙청년회, 전국 학생연합회,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단체인 연리회가 있다. 종단에 등록된 전국 청년회가 60개 지역, 학생회 60개 지역, 어린이회 70개 지역이다.

전국 8개 유치원이 설립되어 현대식 설과 전문 유아교사, 알찬 교육프로그램, 놀이기구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 인성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양물은 대단위 목장과 농장을 운영하여 스님들이 직접 운력을 통해 농작물을 수확 공급하고 있다.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道圓
教務部長 朴德水
教育部長 金國星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邊春光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金吉斗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趙珍德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煥泰
金剛佛教大學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忠北 丹陽郡 永春面 柏子里 132-1
☎(0444) 423-7100~8
FAX (0444) 20-3399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 페이지

천 태 종

종정법어



"도덕성 회복에 힘쓰길"

도용종정예하는 불기 2540년 병자년을 맞이하여 도덕의 세상이 펼쳐지는 자비와 사랑의 한해가 되도록 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종정예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고 자비를 행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맡은 바 처해있는 곳에서 다같이 노력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 각자 스스로 도덕적 생각을 실천할 때 저절로 이 나라는 불국토가 될 것"이라고 설하면서 조국의 통일 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축원했다.

연 혁

- 불기 1138년(594년) 중국의 수나라의 지자대사가 법화삼대부를 완성하여 천태종 창립.
- 불기 1641년(1097년) 고려 숙종2년 의천대각국사께서 국청사에서 정식으로 한국천태종 개립.
- 불기 1968년(1424년) 조선 세종6년 억불정책으로 천태종은 선종으로 통폐합, 그 후 천태종은 법불교적인 물결속에 흡수되어 민간불교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옴.
- 불기 2489년(1945년) 음력 5월5일 상월원각대조사께서 현위치에 구인사 창건.
- 불기 2510년(1966년) 8월30일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
- 불기 2511년(1967년) 1월24일 정부에 대한불교천태종 등록, 초대종정에 상월원각대조사 취임.

'45년 구인사 창건
'66년 천태종 중창

- 불기 2514년(1970년) 음력 11월28일 종헌선포.
- 불기 2518년(1974년) 음력 4월 27일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 불기 2518년(1974년) 7월2일 제2대 종정에 다충대종사 취임.
- 불기 2521년(1977년) 5월 천태종보 창간.
- 불기 2526년(1982년) 11월16일 금강학원과 금강불교대학 설립.
- 불기 2529년(1985년) 1월1일 월간금강 창간.
- 불기 2535년(1991년) 4월16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으로 허가받음.
- 불기 2537년(1993년) 12월22일 김도용 대선사 제3대 종정으로 추대.
- 불기 2539년(1995년) 6월17일 中 국청사에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건립

전운덕 총무원장이 말하는
천태종의 21세기

구인사 성역화



다가올 21세기는 우리 사회의 모든 방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에 의해 그 나라의 흥망이 갈리는 것처럼 종교 또한 그 경쟁력에 따라 흥쇠가 결정될 것입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중창이래 일천한 역사 속에서도 일취월장하는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것은 천태종이 현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태종의 장점은 몇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천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개립한 이래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입니다. 둘째는 동북아 삼국이 같은 종명을 갖고 있다는 국제적인 인지도 입니다. 셋째는 국내의 여타 종단들과는 달리 전 종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총본산 구인사의 위상입니다.



중국 국청사 中韓 천태종조사기념당에 봉안된 천태지자대사(中) 대각국사(右) 상월조사(左)의 청동좌상.



한국 천태종의 뿌리를 찾고 韓中 불교교류의 새 장을 열기위해 중국 천태산에 세운 조사기념당.

교육 복지 수행전력 '소백에서 세계로'

종무전산화등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4년제 불교대 설립…해외교류 확대

지금 구인사에 들어서고 있는 조사전은 구인사 성역화 사업의 1차적인 마무리를 뜻합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 국청사에 한·중 천태조사 기념당을 건립하고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산의 지자대사와 한국 천태종을 처음 세운 의천대각국사, 그리고 현재의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님을 모신바 있습니다. 이처럼 구인사 조사전에도 지자대사와 대각국사, 상월원각대조사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인사의 모습은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구인사 2차 성역화 사업은 멀지 않은 21세기에 천태종의 발전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인사가 들어서 있는 계곡은 너무 좁습니다. 바로 옆의 여의생 계곡은 지금의 구인사보다 두배의 규모로 사찰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마련된 여의생 지역의 사찰조감도는 대조사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과 조사전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 현 구인사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국의 사찰들이 컴퓨터로 구인사와 연결되어 보다 원활한 종무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본산 구인사는 중국의 국청사, 일본의 연력사와도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가짐으로써 국제적으로 천태종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교육불사

천태종의 위상으로 볼때 정규대학의 설립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천태종의 대학설립은 대조사님 재세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사업으로 대전지역을 지명하여 말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천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종단으로써 대학의 설립은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종단에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종단의 생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천태종의 발전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태종은 어느 종단보다도 전국적인 신도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천태종에 대한 관심도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선호경향은 사찰다운 사찰이 건립되고 종단이 종단답게 운영된다면 불교에 대한 귀의로 나타나리라 봅니다.

대학의 설립은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현실사회는 불교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필요에 따른 대학의 건립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불교대학의 건립에 동참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계획대로라면 정부의 대학설립 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불교 교양대학인 금강불교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으로 설립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천태종의 4년제 대학시대를 열게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우리사회는 점점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올해를 '복지사업 원년의 해'로 삼을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종단에서는 부산에 종합불교복지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산 복지관은 몇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몇 지역을 선정한바 있고 부산에 복지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그 첫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상보정재의 사회환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불교계가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천태종은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겠다는 자세로 사회사업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제교류

지난해 부터 천태종은 불교의 국제교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불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 북경에서의 제1회 동북아 삼국대회가 태동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대회가 삼국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자대사 열반 1400주년을 기해 한중일 3국천태종교류를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지자대사를 종조로 삼고있는 3국의 천태종이 각각 열반 1400주년 행사를 거행하면서 상대국의 천태종을 초빙하는 형식으로 빈번한 교류를 통한 유대를 강화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불교교류는 더욱 빈번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들이 이러한 교류를 치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세계화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는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대한불교 천태종의 또 한 불자
전통사찰건축 및 일반건축
동해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남 영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2번지
전화 : (02) 571-5101 ~ 3
팩스 : (02) 571-5104

우 림 목 재
취 급 목 재
육송(戮松)
적송(赤松, 作陽木)
국유림벌목(國有林伐木)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21-45
전화 : (0391) 41-5787, 42-9258
팩스 : (0391) 41-6694

진 승 목 재
믿음과 신뢰로서 새롭게 도전하는 (주)진승목재는 미국, 캐나다 외 동남아 원산지를 직접 답사후 양질의 원목만을 수입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용 목재를 전문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실이라면 진승목재를 찾으십시오.
북미산 HARD WOOD : 홍송, 스프루스, 스기, 미송무철, 화이트오크, 향나무, 홀랏프, 하드메플, 누졸, 비취, 흑단
SOFT WOOD : 단풍, 오리목
중 공 산 : 오동나무
남 양 재 : 마디카, 구루미, 타운, 아카디스, 사루라
대표이사 김진태 합장
목재담당이사 양승생 합장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802-25
전화 : 574-3551~54 / 팩스 : 577-9915

전국 전통사찰 석재공사, 문화재 보수
문화재 등록 제745호
운 강 석 재
대표 남궁치연 합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4-3
전화 : (02) 586-1941
(0351) 872-4963

건강백세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내부 충격·혹한·혹서로부터 뇌 보호

인체는 조화로 유지되는 소우주이다. 인체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으나 누구나 자기가 아픈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느낀다. 치통을 앓아 보았거나 두통, 생 손앓이 등의 경험으로도 알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체의 각부분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부분 한부분을 살펴보고, 신비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 건강한 삶의 길잡이로 삼기 위해서다.

〈편집자 주〉

머리카락이란

머리카락은 인종, 성별, 연령, 영양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동양인은 약 10만개 서양인은 약8만개쯤 되며 1개월에 1.5~2Cm씩 성장한다고 한다. 머리카락은 두개골을 덮고 있는 두피의 표면에 나 있는 모발을 말한다. 물론 두개골 속에는 우리 인체의 총 사령탑인 뇌수(腦髓=골)가 들어 있다. 머리카락은 여러가지 기능과 있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첫째 외부로부터의 위험이나 충격에서 보호해 주는 훌륭한 덮개 역할을 해준다. 즉 충격 완충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온과 혹한 혹서로부터 차단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머리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이러한 혜택들을 아쉬어 함을 정상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자의 사용이 머리가 없는 분들에게는 대용효과가 있으나 어려서부터 지나친 모자 착용은 탈모를 조장하는 수가 있다. 농구, 배구선수들 가운데 일찍 머리카락 손실자가 많다고 한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머리카락이 바람에 세차게 날려서 모근에 부담을 많이 주어 탈모가 촉진 된다는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지나친 자극이나 압박은 탈모를 촉진한다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동의보감〉에 보면 "밤에 머리에 손빗질(손가락을 빗살처럼 펴서 머리빗질을 하는 일종의 맛사지)을 매일 하면 오래 살고, 두발에 좋은 양생법(養生法)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나이가 든 후에 빠지는 것은 소위 대머리(독발증=禿髮症)라 해서 유전적인 경우가 많다.



필자약력

▲1946년 생
▲경희대 한의과 졸업
▲美 웰함메디컬센터서 진료
▲경원대 한의과 강의

저 너머에 행복이 ①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집없는 설움에 북받쳐서 남편과 마주대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만 심어 주었다

나는 날마다 날마다 부처님을 그리워 한다.

언제나 자비로 감싸주시는 따스함을 느끼면서 만나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아직 중생이기 때문일게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법당 문턱을 넘나들기를 어느새 6년, 초발심이 변정각 이라고 했던가. 부처님 참 가르침을 교리시간에 배우면서 여래곁으로 좀더 가가이 가고 싶은 마음에 손길 닿는데로 경전을 탐닉했다.

법구경 한 귀절을 통해 수 많은 화살이 내 심장에 꽂히는 아픔을 경험했고, 금강경 독경을 통해 중생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붓다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각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현행을 다짐했고 법화경 법사품을 통해서 널리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붓다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기도 했다. 여래 곁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힘겹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한겹한겹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지금은 거울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본다.

환하고 밝은 모습을 찾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회의 그리고 의구심들이 뒤엉켜 혼란속으로 빠져들기도 했었다. 그 많은 시간들은 나를 죽이는 작업이었고 모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붓다께서 진리를 얻기 위해 고행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며 인욕을 배웠고 사람과의 부딪침 속에서는 사무외를 설하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좀더 일찍 불법을 만났더라면 괴로움속에서 방황하며 보낸 많은 시간들이 후회스럽지는 않았을것을… 다행히 이제라도 만날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정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닦음도 내몫이고 회향도 내 몫이라는것을 배웠고 악연이나 선연이나 모두 나로 인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절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참회 기도를 올린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주소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모두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내 어릴적 소망은 자라서 선생님이 되는 거였다. 그것도 어린이를 가르치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동네 친구들과 골목에 모일때면 학교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다. 그때마다 나는 골목대장이 되었고 꼬마들의 선생님이 되었다.

노래를 잘 부르던 나는 어린이 방송 프로에 학교 대표로 자주 출전해서 상도 많이 받아왔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내 노래 듣기를 좋아했던것 같다.

그후 자라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지리교사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교편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말았다.

큰 아이가 세살쯤 되었을때 우리가정에는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다. 연구직 공무원인 남편의 적은 월급은 7남매 장남으로써의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였다.

시골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시부모님의 2년찌 계속되는 흉년소식은 남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 연일 만취되어 들어와서는 부모님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나 역시 그 상황을 모른채 할 수 없었기에 남편과 여러날 상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13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시부모님의 부채를 모두 갚아 드렸다. 남은 몇푼 안되는 돈으로는 독채 전세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독집의 문간방에 세를 얻게 되었다. 이사한 주인집에는 우리딸 보다 한살이 위인 계집애가 있었는데 얼마나 고집스럽고 샘이 많던지 우리애가 갖고 있는것은 무엇이든지 빼앗고 꼭 울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힘든일이 아닐수 없었다. 애들 싸움이 어른싸움 된다고 했던가. 그후 얼마안가서 작은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 녁석은 밤낮을 구분 못하는지 밤에는 밤새도록 울고 보채더니 아침만 되면 흔들어깨워도 늘어지게 자는것이 아닌가. 우리 부부도 힘든 일이지만 안집에서는 더욱 시끄럽다고 야단을 하니 이참저참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고보니 일년도 안되어서 이사를 해야 했다. 아이가 둘이라니깐 방구하기도 힘들었고 집구경 다니기도 다리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저런 일로 남편과의 싸움은 자주 일어났고 할말 못할 말을 서로 하기 시작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면서 집없는 설움에 북받쳐서 남편과 마주대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만 심어 주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겠다며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다.

이 희명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Then the Brahmana Kasibharadvaga threw the rice-milk into some water with no worms. Then the rice-milk thrown into the water splashed, hissed, smoked in volumes ; for as a ploughshare that has got hot during the day when thrown into the water splashes, hisses, and smokes in volumes, even so the rice-milk (when) thrown into the water splashed, hissed, and smoked in volumes.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 버렸다. 그런데 그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뙤약볕에 쬐어 뜨거워진 호미날을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았다.

Then the Brahmana Kasibharadvaga alarmed and terrified went up to Bhagavat, and after having approached and fallen with his head at Bhagavat's feet, he said this to Bhagavat :

이때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온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㉒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It is excellent, O venerable Gotama ! It is excellent, O venerable Gotama! As one raises what has been overthrown, or reveals what has been hidden, or tells the way to him who has gone astray, or holds out an oil lamp in the dark that those who have eyes may see the objects, even so by the venerable Gotama in manifold ways the Dhamma (has been) illustrated.'

"놀라운 일입니다, 고타마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혹은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보리라' 하여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고타마 당신은 갖가지의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astray 길을 잃은, 못된 길에 빠진
'manifold 다양한, 갖가지의

오증욱 기자

96년은 문학의 해다. 인간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다 깊은 정신사적 측면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 문학적 행위라면 불교에 있어서도 문학이 갖는 의미는 크다. 깨달음의 세계를 향한 뭇중생의 염망이든 수행의 길에서 번민하는 구도자의 여정이든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서 토해내는 법열의 언어든 문학의 한 범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매우 귀중한 문학작품으로 남는 것이다. 세계의 문학계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문학으로 용해시키고 있는지 문학의 해를 맞아 해외 불교문학작품들을 다이제스트로 감상한다. 〈편집자 주〉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황색승복 ㊦

앵무새처럼 의미도 모르면서 불경을 외워대는 것이 양심상 부끄러웠다

그럭저럭 예식이라 부르는 여러가지 행사가 다 끝났다. 3일간의 행사를 통해 나는 승려가 되었고 이제 절에서 수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지켜가게 되었다. 예식이 진행되던 때의 분주함과 혼란스러움을 저만치 뒤로하고 나는 황색의 승복을 입은 한 사람의 승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모두가 내 처소에서 물러 갔을 때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황색 승복을 벗어 옆에 놓았다. 그리고 긴장감을 몰아내기 위해 후련하게 큰 숨을 내쉬었다. 피곤해 녹초가 된 몸을 큰 덧자로 펴서 방바닥에 누웠다. 한동안 이런 자세로 누워 있으려 했으나 곧 등이 불에 닿은 듯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아 옷깃을 바로 잡았다. 나는 이미 언제나 어디서나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는 평범한 속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린 것이다.

다음날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외로움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했다. 내 성직 수임식때 찍었던 사진을 모은 여러권의 사진첩을 꺼내 몇번이고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빠짐없이 보았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리어 옛날 생각이 날뿐이었고 사람이 그리웠다. 부모님이 그리웠고 애인과 친구 생각이 났다. 마음이 아파왔다. 그리움을 잊기위해 사진첩을 모두 감추어 버렸다.



그림 · 심민섭

내 사형은 나이가 많은 스님이었다. 그는 내가 승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고 훈련시켰다. 내가 독경을 할 수 있도록 불경외우기도 지도해 주었다. 그는 내게 불교의식에 필요한 여러가지 불경을 무조건 외우도록 지시했다. 나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태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았으나 사형은 매번 얼버무렸다. 다른 것들의 태국어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대답하기 일쑤였다. 다른 승려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 불심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앵무새처럼 의미도 모르면서 불경을 외워대는 것이 양심상 부끄러웠다. 만일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의식이라 이름지어진 것은 모두 음식이나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출가는 행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계속〉

작가소개 니왯 깐타이랏

1945년 방콕 태안시 태생. 퍼창대학 졸업. 12년간 교직생활 후 문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에 젖은 불〉 〈황색승복〉 〈이방인〉 등 단편과 〈시골길〉 등 장편발표.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도서출판 여시아문

절해서 해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석불 이야기 그 첫 번째

돌부처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절해서 해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절해서 해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께 절하세요."

빗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웃음을 흘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환청임에 틀림 없다. 환청이라니. 명색이 정신과 의사인데 환청을 들었다면 내가 곧 환자(?)인가.

몇 년 전 괄공산의 갓바위에 올라 석불을 사진에 담겠다고 이들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합장만 하고 엉거주춤 서 있자니 한 보살님이 나에게 절할 것을 권했었다.

"부처님께 절하세요. 절을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보살님은 정성스럽게 촛불을 켜면서 멍청히 서서 석불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고 한마디 한다.

"절해서 해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다소 익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배려라도 하듯이 그렇게 말을 보탠다. 절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있다. 당장 닥친 위해를 풀어 달라는 기원도 있겠고 아니면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을 막아 달라는 기원도 있을 것이다.

현세의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 보장 받고 싶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석불은 그 본래의 종교적 모습과는 달리 후세 사람들의 소망이 투사된 만큼 영험한 신통력으로 전문화(?)되기 시작했나 보다.

-본문 중에서-



8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남산 부처님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신국판 256쪽/값 6,5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10년 여에 걸친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고집스런 돌부처 사랑, 그 결정체!

눈뜬 채 코 베이고도 히죽이 웃는 돌부처.
우리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치마폭에 한웅큼씩 싸들고 와 지마다 여기 저기 풀어 놓고 간 생사고락의 모든 이야기 보따리들.
복잡하게 얽힌 세간사의 이야기들을 천 년의 미소로 간직해온 돌부처, 우리들의 얼굴.
때로는 전문가의 안목으로, 때로는 정신과 의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펼쳐 보이는 경주남산 석불 이야기.
결국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돌부처의 메시지!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얼추 이런 것들이 이근후 박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석불탐사에 매진하고 있는 사진 작가이자 문화 애호가이다. 1993년도부터는 몇몇 동호인들과 한국석불문화연구회를 결성, 석불 탐사를 통해 민족의 얼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네팔, 그곳'(1982) '불타 4성지'(1984) 등 여러 차례의 사진전도 가진 바 있다.